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윤 주 희

#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윤 주 희

# 인 준 서

윤주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1명은 1회, 나머지 11명의 부모는 개인당 2~3회의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면담 전사본과 현장 노트를 토대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류, 범주화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신체적으로 자녀의 간지러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밤마다 제대

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는 자녀의 아토피 발병에 대한 죄책감, 불확실한 아토피의 지속 시기, 아토피 재발에 대한 우려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 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두려움과 약을 사용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한의원 치료를 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쉽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요법과 아토피 관련 제품 사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무심코 하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으며, 외부 활동에 대한 제약과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할 시 기관장과 유아교사가 부모와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간의 소통을 막고,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부모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들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수업 활동 시 어려움을 겪지만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문화와 생일파티 시 먹는 음식들로 인해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부모들은 아토피로 인한 피부상태로 인해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였으며, 실제 일부 부모의 자녀 중에는 직접적으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아토피 관련 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들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 또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였으며, 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으로 인한 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부모교육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의료진에게 자녀 상태와 스테로이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길 바라고 있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아토피 관련 정보 교류와 활발한 의사소통, 아토피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 등을 위해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아토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이해교육과 아토피와 연계된 먹거리 교육이 실행되어지길 원하였으며,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해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가 형성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친환경 간식과 급식이 제공되어 지고 아토피 유아를 위한 식단이 구성되어지길 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필요로 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아토피 자녀 둔 부모를 위해 모임이 구성되어지길 기대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용어의 정의 .....	5
4. 연구자 .....	5
<b>II. 이론적 배경</b> .....	9
1. 아토피의 개념과 원인 .....	9
2. 아토피의 증상 .....	13
3. 아토피 질환 발생 현황 .....	15
4. 선행연구 .....	19
<b>III. 연구방법</b> .....	26
1. 연구 참여자 .....	26
2. 연구절차 .....	33
1) 예비연구 .....	33
2) 본 연구 .....	33
3. 자료분석 .....	35

IV. 결과 및 해석 .....	37
1.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	37
1)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	37
(1) 잠을 못자는 고통 .....	38
(2) 부모들의 심리적 고통 .....	42
(3)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47
(4)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한 아픔 .....	55
(5) 외부 활동에 대한 어려움 .....	58
(6) 아토피 자녀와 아닌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어려움 .....	61
2)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64
(1)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	64
(2) 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 .....	66
(3)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70
(4) 수업 시 겪는 어려움 .....	73
(5) 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	75
(6) 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 .....	79
2.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 .....	83
1)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	83
(1)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 .....	83
(2) 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 ..	85
(3) 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좌 활성화 .....	88
(4) 가족을 위한 아토피 심리 치료 지원 .....	90
(5) 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 지지 .....	92
(6)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 .....	94

2)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	98
(1)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 .....	99
(2)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 .....	102
(3)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 .....	106
(4) 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공 .....	107
(5)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모임 형성 .....	109
 V. 논의 및 결론 .....	 112

참고 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각 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 .....	16
<표 2>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사 진단율 및 결석률 추이 .....	18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6

## 그림 목 차

[그림 1] 연령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 .....	14
[그림 2]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	1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문명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패턴 변화, 환경오염 증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만성질환 아토피 피부염은 급격히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환경부, 2011),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세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이 6.1%라고 하였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1~5세, 6~11세의 영유아기 및 아동기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아토피 피부염 발병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많다고 보고되었다(김영미, 이윤미, 2009). 아토피 피부염이 영유아기에 많이 유발되는 만큼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시행해야(장원수, 2012) 아토피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초기에 관리 하지 않을 경우 아토피 개선에 어려움을 주고, 아토피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시초가 되도록 한다. 이는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들의 치료 및 예방적 차원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영유아기에 많이 발병하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는 조금 다른 양육 경험을 하게 된다.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녀의 아토피 증상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의 소양감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바르거나 먹여

야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유일영, 김동희, 2004). 정휘정, 오칠환, 조숙행(1990)은 불안과 우울빈도가 중도의 아토피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성격과 학업, 발달지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유일영, 김동희, 2006).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친구관계나 취미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 저하에 대한 걱정을 하며(Lapidus & Kerr, 2001), 실제 아토피가 있는 아동들은 학습과 놀이 등에 제한을 받아 또래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Howlett, 1999). 또한 아토피 아동들은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고 거부를 당하기도 하며, 소양감으로 인해 수면 부족현상을 겪거나 자신감 부족 및 우울적 성향 등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Lewis-Jones, Finlay, & Dykes, 1995).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신체 및 정서적 어려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이는 자녀의 아토피 증상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휘정, 오칠환, 조숙행, 1990). 이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들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토피 가정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어려움과 아토피 피부염 인구의 증가는 아토피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관심을 높여 주고 있다. 근래에 들어 정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관리를 국가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즉, 정부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거중심 전문 교육과 상담을 위해 서울시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4여개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42개의 보건소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

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9). 그러나 현재 아토피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시범 운영 상태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들의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할 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모색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토피 관련 지원 사업은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통합적 안목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한편, 아토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와 가장 가까운 사회체계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유아의 건강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컸으나 현재에는 유아의 건강은 부모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책임의 일부가 되었다(조경자, 이현숙, 2006). 그러나 아토피가 있는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지만, 유아들의 건강 관련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유아교사들은 아토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유아교사들의 아토피 유아의 질병관리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여건 부족은 유아교사가 아토피 유아들을 지도할 시 부모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박미혜, 2006). 또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한 상태이다(김정은, 2011).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토피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의학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유아 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과 지도방안(김정은, 2011; 박미혜, 2006)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사들의 어려움(송효현, 2010)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있다. 또한 아토피 치료(홍정호, 200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아토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생활양식(강의정, 2007; 전주영, 2007; 전주영·임재택, 2007)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소수 있다.

이상 논의된 선행연구들은 현장 유아교사의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연구들이다. 즉,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부모의 어려움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연결이 되고 자녀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에 부모들의 아토피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요구하는 바를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 3. 용어의 정의

#### 1) 아토피

아토피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연관된 유전적 성향을 의미하며, 아토피 질환에 포함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의 임상 증상이 있을 시 사용되는 용어이다(질병관리본부,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염을 의미한다.

### 4. 연구자

#### 1)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유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바로 직전 제주도 보건소와 교회가 주체로 하는 아토피 캠프에 보조교사로 참여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 아토피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음식 교육과 생활습관형성, 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기 위해 각 지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제주도까지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자녀의 아토피를 고쳐주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아토피 캠프에는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아이들이 참여하였으며, 아토피의 정도도 연령만큼이나 다양하였다. 특히 눈에 띠었던 유아기의 지호는 아토피가 심한 아이였고 캠프 기간 동안 짜증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토피로 인해 기인된 것임

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호는 캠프 기간 동안 밤마다 아토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잔적이 거의 없었다. 이를 돌보는 부모 또한 자녀의 아토피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아토피 캠프에서 본 것 이외에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캠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영유아기에 아토피가 많이 발병되고 유병률도 높다는 것이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는 초등기의 아토피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한 나는 아토피 아이들에게 있어 영유아기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토피 캠프에서의 경험은 내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 2) 연구자로서의 나

대학원 진학 후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모들과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교육정책 과목을 수강할 시 다양한 국내외 정책들을 공부하면서 아토피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현황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다 더 아토피가 있는 자녀의 부모와 아토피 유아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유아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토피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가와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토피 영유아 부모들을 이해하고 보다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무렵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면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세계와 관점 및 감정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 심층면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계기와 배경을 통해 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를 이해하여 적절한 교육과 교사와 부모간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3) 연구현장에 있는 나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연구 초기에 나는 다양한 배경의 부모들과 면담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음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으며,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차원 및 유아교육차원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는 우울적 성향이 있거나 적대심이 있기도 하여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기인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부모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마음을 열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한편, 연구자는 면담을 하면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부모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의미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아토피의 개념 및 원인

#### 1) 아토피의 개념

아토피(Atopy)라는 말은 로버트 쿠크와 코카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아토피는 “이상한” 또는 “알 수 없는” 이란 뜻이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증상도 규칙성을 띄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다. 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이 포함된다(곽은희 외, 2011). 아토피 질환 중에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은 대체로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 피부 질환이자 정신신체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질환이다(Gil & Sampson, 1989).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2012)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영유아기에 흔하게 생기는 염증성 피부질환이라고 명시해 주고 있다. 또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2012)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대체로 생후 2~3개월에 시작하여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였으며, “태열”이라고 부르는 영아기성 습진을 아토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2012)에서는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적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였으며, 염증이 생길 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은 피부를 자주 긁게 만들고 피부손상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악화시키고 더욱 가려움증을 심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영유아에게서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아토피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두산백과사전(2012)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토피 체질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습진 모양의 피부병변이며, 내인성습진(內因性濕疹), 베니에양진(痒疹)”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아토피 피부염이란 영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 2) 아토피의 원인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다(Sandstrom & Faergmann, 2004; 박영립, 박준, 2007에서 재인용).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면역적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연결되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성현철 외, 2006). 김태윤(2009)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피부장벽의 저하된 기능, 면역적 병리,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발생<sup>1)</sup>, 유전성 등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대기 오염과 모유수유 감소, 핵가족화 형성, 항생제 사용 증가에 의한 항원 노출의 증가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Wollenberg, Kraft, Oppel, & Bieber 2000). 이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유전적 유인, 환경적 요인,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요인, 정신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한다.

---

1)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단백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며, 화학물질을 케모카인이라고 한다.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은 세포의 증식, 분화, 기능과 활성의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다(곽은희 외, 2011).

첫째,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될 수 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은 가족적 경향을 나타낸다. 알레르기 가족력이 영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김혜영 외(2009)는 가족력에 따른 아토피 발생률의 차이는 알레르기가 없을 시 14.7%, 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병력이 있을 시 27.0%,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 병력이 있을 시 41.7%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만 있을 시 30.7%, 아버지만 병력이 있을 시 22.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알레르기 병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높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최근에 걸쳐 아토피 피부염의 급격한 증가는 유전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산업화, 서구적인 식습관, 주거형태 등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산업화로 인한 매연과 같은 환경 공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다(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2012). 특히, 요즘 들어 아토피 원인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해인데, 자동차 배기가스와 매연은 체내에 있는 유해산소를 증가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영유아·아동의 아토피를 성인까지 진행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곽은희 외, 2011). 또한 식품의 다양화와 첨가물 사용의 급증 또는 인스턴트 섭취는 음식물 알레르기 질환을 증가시켰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침대, 소파, 카펫을 이용한 서구적인 주거 형태로 변화되게 하여 집 먼지진드기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었고,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인물질 알레르겐<sup>2)</sup>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였다(국립독성연구원, 2006;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2012).

셋째, 아토피 피부염은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해 발병될 수 있다. 아

---

2) 알레르겐이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의미한다(위키백과, 2012).

토피 피부염을 지닌 영유아·아동의 30% 정도가 음식물에 의하여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음식물과 아토피 피부염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유아에게 아토피가 발생되거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의 원인으로 음식물 알레르기를 주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곽은희 외, 2011).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식품 중에는 우유, 달걀, 밀가루, 대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으며, 크게는 땅콩, 호두, 잣과 같은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 또는 생선류, 어패류 등이 포함된다(곽은희 외, 2011). 강정우 외(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중증 영유아·아동이 계란흰자와 우유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조사 되었다.

넷째, 정신적인 요인은 아토피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부족, 아토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곽은희 외, 2011).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심한의 감정 변화와 긴장감은 영유아와 아동들에게 가려움을 유발한다.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및 아동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기의 아이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학습적인 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서적 스트레스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국립독성연구원, 2006).

이외에도 실내 건조 및 높은 온도, 땀을 흘린 경우, 어린 영아가 침을 많이 흘릴 때, 몸에 끼는 의복이나 재질이 거친 속옷을 입을 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고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질병관리본부, 2009).

이와 같이 아토피 원인들에 대해 살펴본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 환경, 면역성, 정신적인 요인, 피부장벽 이상, 실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아토피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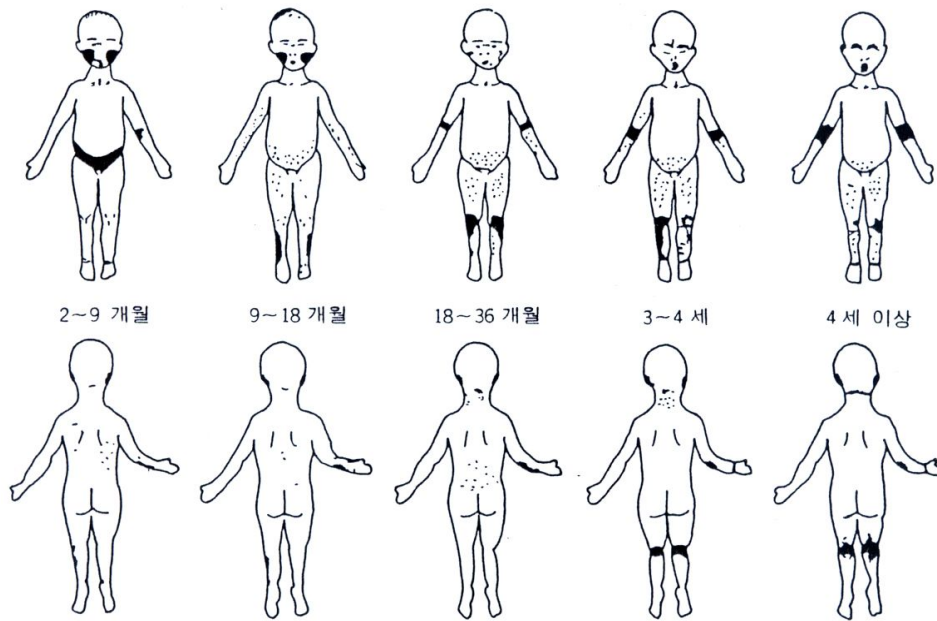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은 심한 소양증과 피부건조증 및 피부병변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토피로 인한 피부 건조는 가려움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또한 가려운 부위를 긁게 될 경우 습진성 피부 병변이 발생하고 이 병변이 진행되어 더 심한 가려움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서울대학교 병원, 2012). 강태진과 이상로(2010)는 아토피 피부염의 부증상으로 피부 건조, 어린선, 모공 각화증, 두피 부위의 만성적 인설, 피부의 감염, 유두 습진, 결막염, 눈 주위의 색소 침착, 땀이 난 이후의 간지러움증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은희 외(2011)는 아토피 피부염을 단계별 증상에 따라 붉은 정도, 부종이나 구진 정도, 긁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붉은 정도는 아토피가 경증일 경우 피부에 붉은 빛이 띠는 정도이나 더 진행될 시 색깔이 진해지고 범위도 넓어져 화상을 가볍게 입은 것처럼 보인다. 중증일 경우 붉은 곳과 붉지 않은 곳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해지며 심한 곳은 실핏줄이 터질 듯한 느낌을 준다.

둘째, 부종이나 구진 정도는 초기에는 좁쌀크기만한 점이 군데군데 나타나며, 육안으로는 부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심해질 경우 붉은 부위가 구진 주변으로 넓어지며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라 육안으로 부어 보인다. 심해질 경우 관절 부위를 구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오르며 화상을 입은 것 같다.

셋째, 긁은 정도는 경증일 경우 긁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좀 더 긁을 경우 딱지가 앉고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고 심하게 긁었을 시 광범위하게 상처가 생기면서 딱지가 앉게 되고 치료 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에 따라 비교적 특징적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영유아기, 소아기, 성인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질병관리본부, 2009).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 부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령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

출처: 질병관리본부(2009). 아토피·천식의 역학과 관리 (p. 67).

첫째, 영유아기(출생~2세)에는 뺨, 이마, 두피에 전형적인 홍반성 구진 및 수포 양상을 보인다. 병변은 주로 얼굴, 몸통, 팔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로 “태열”이라 불리 우며 생후 2~3개월에 뺨이 붉고 건조하며 비늘이 있는 습진 소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둘째, 소아기(2~12세)에는 일반적으로 손, 발, 손목, 발목, 신체의 굽어지는 쪽에 흔히 발생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병변이 팔쪽에 처음으로 보이기도

한다. 얼굴은 영아기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눈 주위, 입 주위에 국한되어 많이 나타나며, 가려움증이 매우 심해 수면 방해를 유발한다. 습진 병변은 건성으로 구진이 발생하여 빠르게 융합하고 판을 형성한 다음 심하게 긁을 경우 태선화<sup>3)</sup>가 될 수 있다.

셋째, 성인기(12세 이후)에는 대체로 사춘기쯤에 발생되며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소아형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여러 부위에 태선화 양상을 보이고, 포도상구균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인해 삼출<sup>4)</sup>과 기피가 형성되기도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얼굴, 목, 팔의 상단 부위 등 신체 굴곡부위에 많이 생기며 손, 눈, 항문 생식부위에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상 아토피 증상들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간지러움증, 피부 건조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아토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령에 따른 특징적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토피 질환 발생 현황

과거 1960년대 이전에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소아의 2% 정도뿐이었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립독성연구원, 200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에서는 Datamonitor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나라의 4,000만명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아토피 전

---

3) 태선화란 피부를 지속적으로 긁을 경우 피부가 두꺼워져 심한 주름이 보이는 현상이다(네이버 지식사전, 2012).

4) 삼출이란 혈관 밖으로 혈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전, 2012).

체 인구 발병률은 미국, 6.4%, 일본, 5.4%, 프랑스, 5.1%, 영국, 5.6%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별로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각 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각 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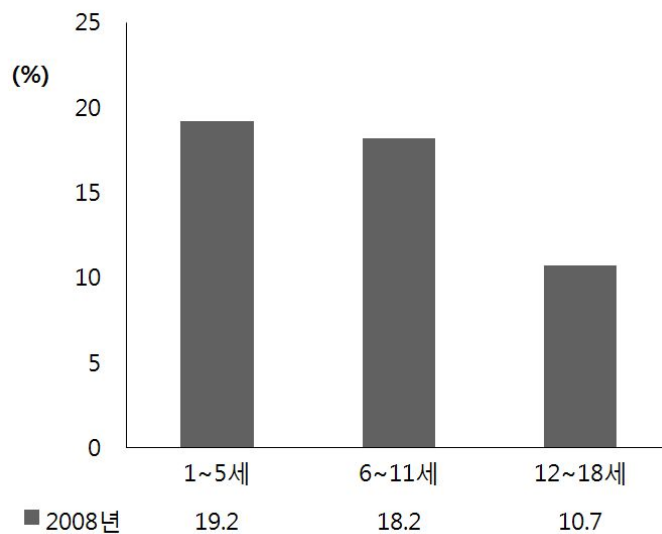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인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전체
영유아 (0-4)	4,455	1,180	797	734	731	569	8,941
아동 (5-14)	7,123	2,160	687	539	1,047	310	12,057
성인 (>15)	7,960	3,646	1,647	2,351	1,634	1,652	20,134
전체	19,538	6,986	3,131	3,624	3,394	2,531	41,112
전체인구수	303,354	128,326	60,940	82,618	60,018	59,173	737,033
아토피발병률 (전체인구수)	6.4	5.4	5.1	4.3	5.6	4.3	5.5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 아토피 치료제 국내외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개발 트렌드 및 국내 보유기술 분석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세 이상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이 2009년에는 5.4%에서 2010년에는 6.1%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08년 아토피 피부염 진료환자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28만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23만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에 따른 10세 미만의 진료 환자 수는 농어촌 보다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진료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기에 아토피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 우리나라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08년 국민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19.2%(07~08년) 즉, 5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보도자료.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1~5세가 19.2%, 6~11세가 18.2%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기에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12~18세가 10.7%정도인데 이는 아토피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한편으로 아토피가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혜영(2008)은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만 6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역학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총 2523명 중 475명(18.8%)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아토피 유병률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1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에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아토피 의사 진단율이 2009년 18.9%에서 2011년 23.1% 즉, 2년 사이 14.2%가 늘어났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석률이 2009년에는 7.7%, 2010년에는 8.0% 2011년에는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사 진단율 및 결석률 추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사 진단율 및 결석률 추이

(단위: %)

	의사진단율			결석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아토피 피부염	18.9	22.0	23.1	7.7	8.0	7.2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보도자료.

2008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는 서울시의 천식 및 아토피 증상이 있는 환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토피를 지닌 환자의 1/3이 주 1회 학교를 조퇴하고, 1/3은 주 1회 학교를 결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주 1회 이상 직장을 결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은주, 2010).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부모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천식의 유병률 증가와 평행을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징후들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뒤이어 발병하게 되는 아토피성 질환의 시작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이루어진 종적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 43%가 천식으로, 45%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발전되어 아토피 행진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가 천식으로, 경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30%가 천식이 발병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가 천식의 위험 요소로 나타났다(김정희, 2004).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아토피 피부염은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에 높은 발병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층에서까지 증가하는 추세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시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선행연구

### 1)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영유아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토피

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육체적 어려움, 치료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인 부담감 등이 있다.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유일영과 김동희(2006)에 의하면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끊임없는 청소와 음식 조절과 같이 일상생활에 부가되는 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힘들어 하며, 자녀의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아토피 영유아·아동 어머니들은 낮에는 자녀의 일상생활 관리로 인해, 밤에는 자녀가 긁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밤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있거나 약을 발라주는 일을 하고 있어 휴식과 잠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나혜경, 2006). 영아를 양육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일 경우에는 자신이 식이 제한을 하여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자녀를 돌보느라 끼니를 거르기도 한다(장은영, 정승원, 이자형, 2006).

둘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가 아플 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병원 치료를 잘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걱정 때문이었다(김민주, 최미혜, 2011). 나혜경(2006)에 의하면 부모들은 치료진에게 연고와 약의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던 적이 거의 없으며, 연고와 약 처방만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셋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정승원 외(2005)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들 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중증 아토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우울증 증상과 유사하게 슬픔, 불안, 흥미 부족, 평소 보다 말수가 줄고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아토피 증상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예후에 대해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고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영, 정승원, 이자형, 2006). 뿐만 아니라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경우,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 정보가 부족할 경우, 질병의 만성화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유일영, 김동희, 2006). 허영호(2007)는 어머니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우울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 자녀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죄책감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이며, 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아는 의존감, 문제행동과 같이 심리사회적인 문제점과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된다(Daud, Garralda, & David, 1993).

넷째,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낀다.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기에 치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유일영, 김동희(2004)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치료로 인해 경제적 지출 증가에 대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해 직접비용(병원, 한의원)과 간접비용(민간요법, 보습제, 주거환경 개선, 식이요법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유승민(2011)은 아토피 환아들은 일년동안 한 달 평균 28.4만원의 직접비용과 44.7만원의 간접비용을 지출하여 매달 총 73.1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비용은 아토피 피부염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김형옥, 박영민, 2008; Ehlken et al., 2005). 허영호(2007)에 의하면 월수입이 어머니의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득이 적은 부모의 경우 아토피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지희, 2011).

이외에도 부모들은 아동의 성격과 행동상의 특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자녀가 고집이 세고, 산만하고, 짜증내는 성격을 지니게 되어 지속적으로 아토피 질환이 자녀의 성격 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며 걱정스러움을 지니고 있다(유일영, 김동희, 2004). 그리고 부모들은 식사, 외출, 가족 여행 등에 활동제약을 많이 받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 갈등과 무력감을 경험한다(정승원 외, 2005). 또한 중증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토피가 없는 다른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장은영, 정승원, 이자형, 2006). 뿐만 아니라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 및 훈육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걱정을 한다(Lapidus & Kerr, 2001).

위와 같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 주는 것이다.

## 2) 아토피 증상 영유아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영유아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이 겪는 어려움은 수면 부족과 가려움, 또래관계와 학습 등으로 인한 것이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수면 부족과 가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영유아들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인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수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수면 문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ores, Burrows, & Crawfords, 1998). 또한 수면부족은 낮 동안에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일으킨다(Lapidus & Kerr, 2001).

김정은(2001)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은 기관에서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의 부적응 행동으로 주의산만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어려움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도 기인된 것이다.

조복희, 오세영, 정자용과 이형민(2008)은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가려움증으로 인해 아토피를 지니고 있는 유아들이 피부를 수시로 긁어 집중력이 짧아지고 산만하게 되어 외현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아토피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지시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관생활의 부주의함은 다른 또래들이 아토피 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수면 부족으로 오는 피곤함과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은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의정(2007)은 아토피가 있는 유아는 주의산만과 참을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과 변화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은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인 가려움으로 인한 것이며, 가려움은 유아에게 고통과 짜증을 유발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이에 따라 아토피가 있는 유아는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심리 발달과정에도 영향을 받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문제를 일으키고, 인격형성에도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래는 유아들의 성격과 사회적인 행동 또는 가치관과 태도형성에 독특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배지희, 1995). 유아기의 또래관계는 성인이 되었을 시 사회적 관계와 행동 등의 근간이 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Denham, Mckinley, Cuchoud, & Holt, 1990).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영유아들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며, 후기 사회와 학습적인 기초를 형성하게 해준다(오채선 외, 2008).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은 유치원 적응에 도움을 가져다주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높은 학업성취와 연관이 있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은 특징적 외모로 인해 또래에게 소외 될 가능성이 크며, 친구에게 거절을 당하여(Lewis-Jones et al., 1995)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이고 재발가능성이 높기에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와도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조복희 외, 2008). 이와 마찬가지로 박미혜(2006)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와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부를 노출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쉽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

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체성이 확립될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신체질환은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 시키며 부정적 자기상을 형성하게 만든다(안나영, 김경순, 2010). 신체이미지 손상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불안, 우울을 느끼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어(송인섭, 1998; 안나영, 김경순, 2010에서 재인용)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유아들은 일반 유아들에 비해 정서적 문제가 더 높다고 보고되었으며(Daud, Garralda, & David, 1993), 편복양(2005)은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유아들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 분노하며, 외형적인 창피함을 느끼고, 자신감 상실 및 사회적인 고립감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와 아동들의 어려움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들의 아토피 피부염은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습 및 또래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며, 영유아들의 정서 및 심리적인 부분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sup>5)</sup>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Spradley(2003)가 제시한 좋은 정보제공자 선택 요건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며, 그 문화에 현재 속해 있고, 연구자가 익숙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를 찾아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였으며, 아토피가 약한 정도에서 중간 정도 또는 심한 정도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3년 정도까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아토피 자녀연령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아토피 정도*	형제자매
정현 어머니	31세	고졸	만4세(여)	민간 어린이집	중간	만6세(남)
하라 어머니	40세	대졸	만0세(여)	- 민간 어린이집	약함↔중간	만4세(여) 만6세(남)
아영 어머니	34세	대졸	만4세(여)	놀이 학교	심함→약함	-

5)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와 영유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민정 어머니	39세	전문대졸	만3세(여)	사립 유치원	약함	만8세(여) 만11세(여)
정호 어머니	38세	대졸	만2세(남) 만5세(여)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심함	-
주원 아버지	40세	대졸	만4세(남)	민간 어린이집	심함	만6세(여) 만9세(여)
승아 어머니	46세	고졸	만3세(남)	국공립 유치원	심함	만11세(여)
소희 어머니	37세	전문대졸	만3세(여)	국공립 유치원	심함↔중간	만5세(여) 만6세(남)
현민 어머니	31세	대졸	만0세(남)	-	심함	-
지훈 어머니	46세	고졸	만2세(남)	법인 어린이집	중간	만20세(남)
민지 어머니	42세	대졸	만5세(여)	사립 유치원	심함	-
정수 어머니	47세	전문대졸	만5세(남)	국공립 어린이집	약함	만9세(여)

\* 자녀의 아토피 정도는 부모의 면담에 의거하여 반영하였다.

## 1) 정현 어머니

정현 어머니는 31세이며 사무직 일을 하는 어머니이다. 만 4세 여자와 만 6세 남자 자녀를 두었으며 이중 만 4세 여자 아이가 아토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정현 어머니는 5년 정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며, 자녀가 음식을 잘 못 먹을 시 온 몸에 아토피가 번져 종종 응급실에 데리고 간다고 하였다. 정현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검사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국가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 2) 하라 어머니

하라 어머니는 교육학 전공자인 40세 어머니이다. 만 0세 여자, 만 4세 여자, 만 6세 남자 모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이중 만 0세 여자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으며, 만 4세 여자 아이는 아토피가 약하게 있다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만 7세 남자 아이는 만성질환인 비염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6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며, 다수의 자녀가 아토피, 비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 다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아토피가 없는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3) 아영 어머니

아영 어머니는 전업주부에서 현재 예술관련 일을 하고 있는 34세 어머니이다. 과거에 자녀의 아토피가 심한 수준에 있었으나 좋은 치료 방법을 만나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한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6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아영 어머니는 만 4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를 또 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둘째 자녀마저 아토피 일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겪었던 고통들을 둘째 자녀를 낳고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아영 어머니 세계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토피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 4) 민정 어머니

민정 어머니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39세 어머니이다. 만 3세, 만 8세, 만 11세 여자 자녀를 두었으며, 이중 만 3세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1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5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민정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가 심한 유아들의 경우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동화, 연극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이용하여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를 위한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5) 정호 어머니

정호 어머니는 교육관련 일을 했었으며 현재는 전업주부인 38세 어머니이다. 만 2세 남자 자녀와 만 5세 여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두 자녀 모두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 자녀들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2~3개월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7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기관장 및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아토피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

#### 6) 주원 아버지

주원 아버지는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40세 아버지이다. 만 4세 남자, 만 6세 여자, 만 9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세 자녀 모두가 아토피

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자녀들의 아토피 증상은 3~4살 때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9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주원 아버지는 자녀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원 아버지는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7) 승아 어머니

승아 어머니는 46세 전업주부인 어머니이다. 만 3세 남자 자녀와 만 11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두 자녀 모두가 아토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자녀들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2~3개월에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13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시골로 이사를 갔었으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 다시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한다. 승아 어머니는 자녀를 유아교육기관 보내면서 아토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이에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8) 소희 어머니

소희 어머니는 직장에 다녔다가 지금은 전업주부인 37세 어머니이다. 만 3세 여자, 만 5세 여자, 만 6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중 만 3세 여자 자녀가 아토피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1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5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소희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에 대한 2차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다리 쪽에 아토피 증상이 심해 걸을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소희 어머니는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시 아토피 자녀에게 맞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그런 곳이 없었다고 하였다. 실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후 아토피가 심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그 기관에 자녀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다.

## 9) 현민 어머니

현민 어머니는 31세 교사이자 만 0세 남자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이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3개월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1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하여 현민 어머니는 음식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모유수유를 위한 음식조절도 하고 있었다. 현민 어머니는 자녀를 보고 많이 웃어 줘야 하나 아토피로 인한 걱정으로 인해 자녀를 보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던 어머니였다.

## 10) 지훈 어머니

지훈 어머니는 46세 화장품 관련 판매업을 하는 어머니이다. 만 2세, 만 20세 남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중 만 2세 남자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4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며, 자녀가 과자, 우유,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경우 아토피 증상이 특히 심해진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음식 조절을 한다고 하였다. 지훈 어머니는 절친한 친구의

아들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어린 시기에 고쳐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 11) 민지 어머니

민지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자 42세인 어머니이다. 만 5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의 아토피가 심한 상태라고 한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2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6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이 자녀의 아토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현재에는 자연치유 방법으로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민지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 치료로 인해 유아교육 기관에서 충분한 학습을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학습 및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하였다.

### 12) 정수 어머니

정수 어머니는 47세 판매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이다. 만 5세 남자, 만 9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중 만 5세 남자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1개월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7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정수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좋은 보습제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인스턴트 음식을 되도록 안 먹이려고 한다고 말해주었다. 정수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아토피 관련 교육 및 캠프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 2.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면담 질문 구성 참조와 연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2011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구 참여자가 아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면담을 하면서 부모의 어려움은 자녀의 아토피 정도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자녀의 아토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부모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예비연구 결과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려움 및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질문 구성 시 참고할 수 있었다.

### 2) 본 연구

본 연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2011년 4월 25일부터 2011년 5월 21일까지 총 6명의 부모를 선정하였다. 이후 다양한 부모를 모집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2011년 5월 27일부터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 6명의 부모를 추가로 모집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연구자와 기존에 친분이 있는 자를 선정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다. 연구자는 부모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부모에게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는 총 12명이다.

## (2) 심층면담

본 연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볼 수 있는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는 것(Seidman, 2006)이 효과적이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세계, 의식, 감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며,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유발시켜 심층적인 정보와 이해를 획득할 수 있다(김영천, 2006).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개별면담 형식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레포형성을 위해 부모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일상적인 대화와 부모 및 자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며 편안한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부모는 연구자와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레포형성 기간을 두지 않았다. 면담은 부모들이 면담하기 편안한 장소를 고려하여 카페나 집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횟수는 1명 부모만이 1회, 그 외 11명의 부모는 개인당 2~3회씩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면담은 개방식 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을 사

용하였다. 면담 질문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물어 보았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면담 내용은 부모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전사(transcribe)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와 e-mail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 (3) 현장 약기와 현장 노트 작성

잘 쓰인 현장기록은 이후 보고서를 작성할 시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Graue & Walsh, 1998). 이에 따라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의미 있거나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적어 현장 약기(field jottings)하였다. 현장 약기한 것은 연구 당일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여 현장 노트(field notes)를 만들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면담 전사본과 현장 노트를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사본은 총 254장이었으며, 현장 노트는 총 36장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반복되는 사례의 규칙성을 찾아 주제별로 부호화 과정을 거쳤다(Bogdan & Biklen, 1992). 이후 연구문제에 따라 사례를 추출하여 유목화 하였으며, 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범주들을 하나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범주에 따라 내용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된 범주들을 살펴보면 부

모들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범주화 되었다. 또한 부모들의 지원 요구는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범주화 되었다. 이후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각 하위 범주들에 대한 소제목은 면담 내용의 함축적인 의미가 나타나도록 알맞게 정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 과정(member check)방법을 실행하였다. 또한 연구를 객관화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자 지도교수님과 유아교육 동료연구자 1인의 조언과 검증(peer debriefing)을 받아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이에 따라 개별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분류 되었다.

#### 1)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생활 속에서 겪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은 잠을 못 자는 고통, 부모들의 심리적 고통,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한 아픔, 외부활동에 대한 어려움, 아토피 자녀와 아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1) 잠을 못자는 고통 - “아이도, 부모도 함께 힘들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 힘든 점으로 밤마다 잠을 못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부위를 긁게 되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잠을 못자는 시간이 거의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새벽 두시에서 네시 사이에 긁거든요. 긁는게 한 시간 이상을 긁어요. 간지럽다는 정신에 잠을 자면서도 긁기 시작하다가 자면서 깨겠죠? 계속 긁지 말라고 해도 애라서 조절을 하지 못하니깐 피가 나요. 그러다 보니깐 밤에 계속 약을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밤에 잠들 때가 가장 힘들어 보여요. 한창 움직일 때에는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깐 간지러워도 참아요. 그런데 밤에 잘 때에는 온 신경이 다 느껴지잖아요. 자면서 긁다보니 이불에 피가 묻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자다가 아이를 보면 손을 잡고 막 비벼줘요. 얼음을 대주기도 하고... (지훈 어머니, 2011. 09. 23)

위 사례에서 소희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의 정도가 심해지기와 약해지기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소희 어머니는 특히 자녀의 아토피가 심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두 번째 사례의 지훈 어머니는 자녀가 밤에 지속적으로 아토피 부위를 긁다 보니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 또한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은 오전의 활동 시기보다 밤에 특히 심해진다고 말해주면서 자녀가 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위에 사례에 제시된 부모들의 자녀 외에도 대부분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잠을 제대로 못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영아를 양육하는 현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효과를 보기 위해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알레르기와 관련된 음식을 제한하며 음식 조절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음식 조절로 인해 현민 어머니는 몸이 많이 지쳐있다고 하였다. 현민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 때문에 밤에 많이 울고, 30분마다 잠에서 깬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현민 어머니는 밤마다 자녀를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가 깬 때마다 젖을 물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간지러운 고통이 엄청난거 같아요. 아이가 많이 울어요. 특히 막 졸릴 때 눈을 엄청 비비거든요. 그 때 극도로 간지러운 것 같아요. 간지러워지니깐 울면서 깨요. 너무 너무 간지러우니깐 힘들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애가 밤에 잠을 못자요. 30분에 한 번씩 깨거든요. 젖을 물려야 되요. 젖을 물려야 애가 잠을 자거든요.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니깐 굶어 줘야 되요. 물로도 닦아주고, 아토피에 좋다는 보습제도 발라주고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밤마다 잠을 못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밤마다 약을 발라 주거나 젖을 물리거나 보습제를 발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의 간지러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부모도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원 아버지와 정호 어머니, 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서 부모들의 수면 부족으로 오는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주원 아버지의 세 자녀는 모두 아토피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원 아버지는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아토피 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분이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주원 아버지는 밤마다 자녀들의 간지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주원 아버지는 밤마다 세

자녀를 돌보느라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할 시 자녀를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또한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감이 높아지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가 밤마다 굶어 줘야 하는데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도 힘드니깐 폭발하는 거죠. 밤새 굶어 주다가 해가 떠올라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오래 되도 힘든데... 애들이 굶더라도 제가 잔 다음에 일어나서 굶어 주는 건 참을만해요. 그런데 잠이 쏟아지는데 그 때 아이들이 굶기 시작하면 힘이 드는 거죠. 그게 오래 되면 폭발하는 거죠. 아! 아! 아! 그게 다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화를 내게 돼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죠. 아토피 아이들은 비교적 성숙한 편이에요. 참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힘들 때 백번 도와주고 한번 안도와 주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부모가 도와줘야 되니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깐...

(주원 아버지, 2011. 08. 13)

정호 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 모두 아토피가 있다고 하였다. 정호 어머니는 현재 전업 주부지만 이전에는 일을 했던 직장맘이었다고 한다. 정호 어머니는 전업 주부인 지금보다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때 몸이 더 힘들었다고 하였다. 일이 끝난 이후 자녀의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찾기 위해 바쁘며, 집에 와서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에 분주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밤에는 자녀의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 약 2~3시간 정도 밖에 잠을 못자는 일이 빈번하였음을 말해주었다.

몸이 지쳐요. 제가 애네 돌 할 때 하루에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뿐이 자질 못했어요. 일어나면 출근 했다가 일이 끝나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사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 그거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막 만들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아보고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밤에 잠잘 때에는 아이들이 간지러워 하니깐 간지러울 때마다 계속 약 발라주고

만져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때 잠을 정말 못 잤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의 정호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 때보다 직장에 다녔을 때 몸이 더 지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례의 민지 어머니는 전업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다른 부모들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민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병원에서 주는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어 약을 끊고 한약을 먹이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치료방법을 시행하면서 자녀의 아토피는 이전 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까지 갔고 자녀는 밤마다 간지러운 고통과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모도 자녀를 돌봐주느라 6개월 이상 2시간을 연속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지 어머니의 올바른 수면 습관을 형성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자녀가 없을 경우에도 오전에 잠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민지 어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임파선이 심하게 붓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약을 안 쓰니깐 민지 아토피가 막 뒤집어 졌어요. 그때 잠을 못자니깐 제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제 수면상태가 두 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자본적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면 중간에 깨서 시프 가지러 가야 되고 밤에 또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한 6개월 이상을 했어요. 물론 애를 데리고 있으면 혼자 자는 그런 것도 없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잠을 자도 잠을 쪽 못자는 거예요. 잠자는 수면이 습관이 되버리거든요. 잠을 쪽 들어가면 누가 자꾸 당기면서 나를 깨워요. 그러면서 잠을 계속 못자니깐 임파선 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CT도 찍고 뭐 이상한 거 다 찍고 이랬는데요. 병원에서 검사결과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나도 안 되기도 하고... 애도 너무 괴로워하고...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특히 밤에 잠을 못자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육체적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모에게 다른 질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아토피가 부모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부모들의 심리적 고통 - “죄책감…두려움…걱정…”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또는 걱정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으로 인해 아토피가 생겼다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지 어머니와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는 밤에 수시로 깨요. 수시로 삼십분씩 한 시간마다 깨서 십분씩 이십분씩 굶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도 보여줬지만 순간적으로 살이 똑 떨어져가지고 진물이 흘러요. 아침에 내의를 안 갈아입히면 내의에 진물이 묻어 있을 경우 굳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딱딱한 것 때문에 살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깐 새 내의로 갈아 입혀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 수년을 이려고 있으면요. 이 과정 속에서 겪는 민지가 갖는 고통을 보는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큰 거예요. 어쩔 땐 내 죄가 이렇게 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한의사가 “체질이 좀 타고 나신거 같으시네요” 그런 한마디만 해도 내 아이가 나를 닮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들리니깐 개선의 여지가 없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월 청소라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음식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

리고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개선이 안 될 때 굉장히 좌절하죠. 또 하라가 굵고 그럴 때는 그걸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첫 번째 사례에서 나오는 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6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케이스였다. 민지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실적인 생활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우울한 마음을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지 어머니는 아토피로 인해 자녀가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피부 손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에서 나오는 하라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이 청소를 못해서 또는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는 관리를 못해 자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을 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때로는 자녀가 굵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임신 전 또는 임신 과정 중 자신이 음식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현민 어머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임신을 하였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움이 따랐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짜고 맵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주로 먹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민 어머니는 임신 도중 자신이 먹은 안 좋은 음식들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임신 했을 때 인공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태도가 중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게 아토피로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솔직히 현민이가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반면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정호 어머니도 초창기에는 주변사람들의 말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가 부모의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현재에는 환경오염요인이 자녀의 아토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은 아토피는 부모로 인해 발병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 이로 인해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이 애기가 엄마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죄를 따진다면 부모한테서 온 거다 라고 해요. 부모가 결혼하기 전 부터 평상시에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나온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 부모의 탓 이다 라고 해요. (중략) “빵 많이 먹었지?”, “인스턴트 많이 먹었지?” 부모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전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아토피는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불확실한 아토피의 지속 시기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토피가 초등기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힘든 건 심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까지 지속 될지 확신이 없으니깐 두려운 거죠.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애가 친구도 못 만나면 어떻게 해? 학교도 못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 앞날이 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낫게 해줘야겠다 오로지 그 생각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4)

지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커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없다가도 성인이 되어서 드러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회는 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앞으로의 경우...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이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고쳐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의 아토피가 성인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토피는 또 생각하고 틀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수술 같은 거를 단거리 달리기라고 친다면 아토피는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훈이 아토피를 초장기에 잡으려고 아로마를 온몸에 다 바르는 거예요.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부분, 목 부분은 더 철저히 발라주는 거예요. 한군데를 긁으면 다른 곳도 가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고요. (지훈 어머니, 2011. 09. 23)

아토피가 심한 상태로 초등학교까지 가거나 성인까지 가면 나올 수 없는 불치병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나오면 나중에 커서 재발할 확률이 훨씬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유아기 7세 전, 6세 전에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4)

위의 첫 번째 사례에서 지훈 어머니는 절친한 친구의 아들이 성인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친구의 아들은 심한 아토피로 인해 피부 상태가 심하게 훼손 되어 있으며,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아토피가 있는 주변인의 사례들을 본 것은 지훈 어

머니가 자녀의 아토피를 성인기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훈 어머니는 아토피가 쉽게 낫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녀의 아토피를 어린 시기에 고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의 아영 어머니의 자녀는 영아 때부터 아토피가 시작 되었다고 한다. 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친환경 재료로 매일 조리하여 자녀에게 먹이고, 철저히 음식 조절을 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아토피를 낫게 하기 위해 양방, 한방, 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했던 어머니였다. 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지속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이 컸었다고 한다. 이러한 마음이 든 이유는 아토피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자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자녀의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자녀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영 어머니는 아토피가 불치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발확률을 낮출 수 있는 초등기 이전에 자녀의 아토피를 낫게 해주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자신으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의 아토피가 부모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의 지속 시기와 아토피의 재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낮게 해주기 위해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가거나 또는 민간요법을 사용 하는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병원과 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민간요법과 아토피 관련 제품 사기로 인한 어려움이였다.

#### ① 병원과 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 “병원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시도해도 쉽게 낮지 않는 아토피...”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증상을 발견 할 시 제일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는 병원에서 아토피 치료를 위해 처방해 주는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정보를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주위 사람과 TV 및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스테로이드 기피 현상에 대한 것은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스테로이제를 쓰라고 했는데요. 저는 스테로이제 부작용도 있고 해서 쓰기 싫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발라 줬어요. 심할 때는 조금씩 발랐어요. 그런데 바를 때 뿐이더라고요. 2~3일 지나면 또 그래요. 이것을 계속 발라주면 부작용이 생겨요. 이것보다 강한 거, 독한 약을 계속 쓰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피부가 시커매져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스테로이제 쓰는 사람들이예요. 왜 두꺼비 가죽 피부처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테로이제를 많이 바르고 많이 긁고 딱지가 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스테로이드제제나 그런 치료약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발휘하지만 부작용도 있잖아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자녀가 아토피를 겪은 선배 엄마들에 의하면 약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된 데요. 주변 엄마들이 굳이 병원에 가서 좋지 않은 약을 바르고 먹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병원은 좋지 않아서 안 갔어요.

(정수 어머니, 2012. 01. 12)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단기간의 효과는 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현민 어머니와 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라앉는 건 연고뿐이 없어요. 현민이 아토피가 심할 땐 썼는데요. 이제 6일을 썼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애가 5단계를 쓰는데 단계별로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토피를 시작한지 한 달만에 1단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애가 10월 달에는 주사 맞아야 된다고도 했었어요. 스테로이제 주사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민지가 스테로이드를 3단계까지 썼는데요. 그러니깐 옛날엔 3단계를 삼일만 쓰면 사일째 되는 날 싹 가라앉거든요. 그럼 한 이틀 안 써요. 그러면 한 칠일쯤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한 삼일 써요. 그러면 한 사일간은 싹 가라앉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주일 내내 써도 안 듣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하나면 민지가 워낙 아토피가 만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약이 잘 안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지가 장기적으로 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센 약은 처방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단계 이상의 높은 약을 쓰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센 약은 더 이상 처방해 줄 수 없다는데 그 약이 이제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민지가 그래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위 사례에 나오는 현민 어머니는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를 시도 했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는 자연치유법으로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

었다. 현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도 아토피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했다. 현민 어머니는 아토피를 병원 치료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례의 민지 어머니는 장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녀에게 사용했다고 한다. 민지 어머니의 경우는 아토피 치료약이라고 속여 파는 장사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가장 높은 1등급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를 자녀에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민지 어머니는 스테로이드를 자녀에게 사용할 시 효과가 더 반감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지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3등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수록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민지 어머니는 병원에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3등급 보다 높은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민지 어머니는 병원에서 더 이상 처방을 해주지 않고 약 마저 듣지 않는 자녀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병원에서 아토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은 약을 주는 것뿐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는 민지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처방이 그냥 올라오면 바르고 올라오면 바르고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깐 약을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아토피가 올라오면 그냥 발라주고 올라오면 발라주고 그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방인 거예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피부염이라 생각을 하고 연고를 처방해 주고 평상시 관리를 잘 해줘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깐 병원에 갔을 때에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의학이라는게 그럴잖아요. 바르고, 고치고, 자르고, 치료하고... 그럴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조차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병원치료 보다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주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들 중에는 한의원에서 주는 아토피 치료 한약 및 침 요법과 마사지 요법을 시행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쉽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더 심해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한약을 다섯제 먹었어요. 한약을 심할 때부터 한제에 사십만원짜리를 한 달에 팔십만원을 주고 먹었는데요. 소고기를 시도하잖아요. 완전 뒤집어 지는 거예요. 낫지 않은 거잖아요. 아토피가 나오면 음식을 먹어도 반응을 안해야 되고 날씨가 바뀌어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한약을 다섯제 까지를 먹었는데도 완전 뒤집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모르는데 한약 값도 비싸고... 낫지 않으니깐 일단 한약을 끊었고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한약으로 인한 명현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일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약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그걸 먹고 애가 뒤집어졌어요. 얼굴에 조금 있던 애가 아주 심하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얼굴에서 진물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한의원에 일 년 정도 갔어요. 매일 매일 갔어요. 하는 일이 한의원 갔다 집에 오는 거였어요. 집에 올 때에도 애가 울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토피가 반응하는게 이런 환경도 있지만 짜증나거나 애가 울거나 열이 나면 또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서도 아토피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일 년 다니다가 도저히 괴로워서 제가 살수가 없는 거예요. 한의원을 바꿨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한편, 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 중에는 한의원 에서 주는 한약을 아토피가 있는 자녀에게 먹였으나 부작용이 일어났던 경험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아토피 이외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원 아버지와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의원도 몇 군데 가봤고요. 약 처방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약을 먹었는데 주원이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도 갔어요. 옛날에 주원이가 경끼를 했어요. 생후 10개월 정도 됐을 때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간질이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약 안 먹이고 키웠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아토피 때문에 그 약을 먹은 다음부터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아토피를 낮게 하기 위해서 간에 안정을 잡아 주는 건데요. 저희가 한의원에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안하겠다고 했어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3)

소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 많이 들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먹고 침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토피가 비염으로 발전을 했어요. 아토피하고 비염하고 천식은 연결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소희가 천식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약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했었고 감기에 걸려도 심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염이 생겨가지고... 침 맞고 한약 먹고 했는데도 크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원 아버지는 한의원에서 주는 아토피 치료제를 먹고 자녀의 눈이 돌아갔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한의원 치료를 멈추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녀에게 한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으나 비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자녀에게 한약을 먹였으나 아토피가 나빠지고 좋아지기를 반복하여 아토피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연 요법 치료를 시도하거나 다시 병원 치료를 시키는 등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 ② 민간요법을 시도해도 낫지 않는 아토피

- “민간요법도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소용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잘 나아지지 않자 자녀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요법을 시도한 이후 자녀의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거나 아토피가 더 악화되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했다. 이는 소희 어머니, 주원 아버지, 아영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호주의 타조 목에서 나온 기름이 있대요. 그것도 생협 같은 곳에서 팔아서 제가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샀어요. 엄마들 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진물이 나고 피날 때 바르면 피부가 재생이 된대요. 그런 거는 조금 반신반의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효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심하다 보니깐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큰 효과는 못 봤지만 해보긴 다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목초액도 해봤고요. 별거 다 했어요. 딸기풀이라고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려진 뽕딸기풀이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뽕딸기풀을 끓여가지고 얼굴에다가 맨날 바르고 목욕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열이 많으니깐 민들레로 열 식혀 주는 그런 것도 해보고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3)

처음엔 솔깃하죠. 네네?? 내가 당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찾아봤어요. 들으려고 하고 해보려고 했어요. 다 나왔다고 목초액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해봤는데 애가 더 심해졌었어요. 낫는지도 모르겠고 더 심해지니깐 아휴…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깐 또 다른거 해요. 약 같은 건 바르면 다 보이는데 민간요법이나 자연요법은 무조건 장기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호전이 있으면 하겠지만 호전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더 심해진다 생각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워서… 그러

면 눈물이 나고... 이제 그건 엄마의 판단이에요. 거기서 더 했을 때 아토피가 더 심해지면 아이는 실험대상인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위 사례에서 제시된 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을 시도하였으나 자녀의 아토피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아영 어머니는 민간요법은 장기간 동안 시행해야 하지만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 될 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민간요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하였다.

### ③ 아토피 관련 제품 사기

#### - “엄마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장사꾼들...”

연구에 참여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모의 상황을 이용하여 약 혹은 보습제와 같은 제품을 아토피 완치 치료제로 속여 파는 장사꾼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토피는 아이들이 정말 힘든 건데 어른들은 이것을 장사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아토피가 완치된다, 이것만 바르면 아토피가 완치된다” 라고 해요. 그게 또 되게 비싸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가 하루 하루 힘들어 하니깐 사야 돼요. 하지만 그걸 사용해도 아토피가 낫질 않아요. “아, 속았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하다보면요. 부모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껴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부모들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아토피 치료용 보습제를 구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보습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위험 있는 스테로이드가 첨가된 보습제였다. 이는 소희 어머니와

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인터넷상에 아토피와 관련된 크림이 많았거든요. 그걸 사용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깐 의심하면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으니깐 쓸 수밖에 없는 그런게 있었어요. 사실 이걸 아니지 싶으면서도 믿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식물성 대나무 추출을 했다고 하니깐 믿어보자 했던 거고 너무나 후기도 좋았기 때문에 믿고 썼어요. 나중에 불만제로인가 거기서 터졌어요. 스테로이제 성분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크림이라고요. 한 마디로 사기죠. 그 이후에는 안 썼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부터 완전 다 뒤집어 졌어요. 매번 바른건 아니고 씻기고 한번 바르고 자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처방받았던 스테로이제를 얇게 발라주면서 두세달 고생하다가 조금 나왔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그게 보습제거든요. 78,000원 인데 50g 밖에 안들어 있어요. 일본박사가 연구했고 대나무 추출액으로 만들었대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친한 동생이 권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토피하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발라서 낫는 건 스테로이제 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걸 썼어요. (중략) 한 삼일 발라보니깐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스테로이드 인데 정말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스테로이드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인증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한국과학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스테로이드가 없다고 증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걸 왜 제출 하겠냐고 그걸 섞기 전에 원료를 내서 했을 거다 이걸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이거 발라가지고 애들 잠도 잘 자고 저렇게 깨끗해지는데 나만 불신만 가득해서 이거 안 써서 우리 애 잡나 싶어서 썼어요. (중략) 그 사람들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자란 대나무 순을 구해가지고 죽염을 아홉 번을 고아내서 엑기스만 쓰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순에서 나온 추출물이 죽염에 아홉 번 고아내면 상처에 스테로이드 보다 강력한 항암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썼어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부모들은 아토피 보습제를 자녀에게 사용하면서 의심을 하였지만 믿고 발라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했을 시 아토피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습제 관련 홈페이지에 인증을 받았다는 과대광고와 보습제에 대한 자세한 효능 설명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쳐있는 부모들에게 보습제에 대한 믿음을 더욱 심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좋은 후기와 주변 사람의 경험담에 의존하는 경향을 부모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일등급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들은 자녀에게 보습제를 발라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토피가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자녀가 힘든 생활을 하였다고 부모들은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건 사기로 보습제품을 팔았던 제조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이 약한 수준이 미치는 것이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무 웃긴건 그거를 제조해 가지고 판 사람들이 몇 백 만원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걸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게 그냥 화장품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었다는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면 그 화장품에 넣어서 안 되는 성분을 넣은 죄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 (4)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한 아픔

##### - “우리 아이 그렇게 보지마세요”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웃들이 무심코 하는 말로 인해 부모들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다. 이는 아토피가 얼굴에 있거나 아토피가 접히는 부위에 심하게 드러나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게서 크게 나타났다.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니깐 저랑 나가면 사람들이 애기 얼굴 한번 보고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이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우울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줌마들이 안쓰러우니깐 어떻게 하냐고 말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토피에는 이게 좋다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들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깝게 보는게 너무 싫었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특히,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부모에게 상처가 되며 더 나아가 자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길을 갈 때 엄마들이 우리 애를 보면 정말 심할 때는 “재, 데인 거야?”, “재, 화상 입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려요. 아무래도 여름이면 노출이 있으니까 아토피 부분이 노출 되잖아요. 그 애기 듣고 좀 기분이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은 저한테 상처지만 나중에 애기가 커서 알았을 때에는 애기한테 상처가 될까 봐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 사례의 소희 어머니 자녀는 팔, 다리의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소희 어머니는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하므로 자녀의 아토피가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위 사례는 소희 어머니가 유치원이 끝나고 난 후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의 부모들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소희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자신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였으며, 자녀가 성장할 경우 자녀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외부 사람의 시선과 말로 인한 어려움은 정호 어머니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긴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아토피가 보이니깐 최대한 긴 치마를 입혔어요. 일단은 그걸 해보니깐 아토피가 막 올라올 때 그런 아이를 외부에 보여주는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를 길게 입히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 탔다가 “아이고 애 아토피구나, 엄마가 먹는거 잘해야 겠다” 탁 그 말을 하는데 순간 정말 엘리베이터를 확 나오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토피 아이 엄마한테 사람들은 “어머, 아토피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화도 확 나고... 그런 말들 함으로써 부모들도 그렇지만 조금 큰 아이들 같으면 인식을 해요. “아 다른 애들은 피부가 괜찮은데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도 할 것 같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의 정호 어머니의 첫째 자녀는 여아인데, 목을 비롯해서 팔, 다리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 정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이웃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화가 나게 만든다고 하였다. 정호 어머니는 이웃사람의 자녀를 보며 하는 말들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에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주변사람들이 자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화상 입은 거야?”, “먹을 거 잘해야 겠네” 와 같이 무심코 뱉는 한마디들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위축되게 만들고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자녀가 정상인이 아닌 존재로 구별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부모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외부 활동에 대한 어려움 -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로 인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호 어머니와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밖에 나갔을 때 어디에 가면 뭘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보편적으로 친환경 매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걸 먹이면 마트나 식당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한참 할 때에는 데리고 나가는 것을 가급적 최대한 줄여요. 왜냐하면 나가면 아이들이 음식을 보고 먹고 싶어하니깐 부모도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 한번만 먹이자 하면서 다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밤에 보면 몸에 막 올라오고 간지러워하고 그런게 있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아토피 아이 엄마들은 이웃집에 잘 못가요. 아무리 친해도요.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애는 못 먹잖아요. 오늘도 갔는데 거기서 국수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와버렸죠. 왜냐하면 국수를 보면 먹고 싶어 할 거고, 그걸 못 먹게 하면 짜증을 낼 거고, 짜증이 나면 더 굶고, 가렵거든요. 아예 안 보는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만약에 가더라도 내 아이 음식은 따로 싸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양약, 한약, 민간요법, 자연치유방법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부모다. 정호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가 심한 상태이며,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 등에 피부가 반응하여 아토피가 악화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에 정호 어머니는 한방 및 자연치료로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친환경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고 말했다. 친환경 음식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생활 습관은 자녀와 함께 외부 활

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호 어머니는 자녀와 놀러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음식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호 어머니는 제한음식을 자녀가 먹고 싶어 할 시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먹도록 놔두지만 이후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정호 어머니는 자녀와의 외부활동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다.

두 번째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현재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의원 치료를 시도하는 중에 있었으며,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음식조절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음식조절을 하고 난 이후부터 외부활동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자녀의 음식 조절로 인해 친한 이웃집에 가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라 어머니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이기보다 피하는 방법을 더 취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거리에는 음식을 챙겨가는 수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 사는 친지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자녀를 위해 음식을 해주기 어려웠다고 하라 어머니는 이야기하였다.

이번에 큰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전혀 차단을 못했어요. 가까운 교회는 신선하게 보존을 해서 갈 수 있는데 그 곳에서는 몇박 몇일 동안 있으니깐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더 올라온 거예요. 애가 외부 환경이니깐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조그마한 거에도 예민해 지니깐 이후에 상처가 더 붉어 졌어요. 그거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의 사례들이 음식으로 인해 자녀와의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이야기였다면 다음의 사례는 음식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외부활동 시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험을 한 부모의 사례이다. 이는 아영 어머니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있다.

마트나 백화점이나 숯불갈비 집에는 공기가 탁하고 건조하고 안 좋잖아요. 그 공간에 민지가 30분 있잖아요. 그럼 아토피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영이가 어렸을 때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같이 안 가려고 했어요. 말기고 저 혼자 갔어요. 그런 곳에 데리고 가면 한 달 내내 고생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밖으로 놀러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음식을 아래부터 위까지 다 싸가야 되는 거예요. 음... 놀러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영이는 놀러가서 놀지도 못해요. 또 어른들이 주장해요. 안 되는데... 그 거를 말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애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토피 있어도 괜찮다고 다 먹어야지 큰다고 그러세요. 안된다고 말하는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 거에 철저한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니깐 저도 너무 심하게 예민해 지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 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게 잠깐 일주일 힘들게 아니고요. 아토피가 심해지기 까지 얼마가 걸리고 진물이 나서 얼마가 걸리고 다시 굳을 때까지 얼마가 걸리면서 아이는 계속 긁는 거예요. 이게 3주 이상 가니깐 계속 반복이 되어요. 아토피가 나올 수 있는 퍼센트가 훨씬 줄어들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4)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영 어머니는 공기에 의해 자녀의 아토피가 발병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에 백화점, 마트 등과 같은 공간에 자녀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놀러갈 시 자녀의 음식을 일일이 싸가야 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아영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다. 특히, 웃어른들이 자녀의 아토피에 안좋은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줄 경우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에서 살펴 본거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놀러가는 일, 가까운 이웃집에 가는 일, 교회,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일, 가족 여행 등 자녀와 같이 하는 외부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보통 자녀의 아토피 관련 음식과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오염된 공기와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아토피 자녀와 아님 자녀를 함께 양육 하는 어려움

##### - “아토피 자녀와 일반 자녀 ... 함께 키우기 힘들어요”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를 함께 양육 할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토피 자녀의 아토피 치료 및 개선을 위해 음식조절이나 음식제한을 할 시 부모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라 어머니와 정현 어머니,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명은 아토피가 심하고 다른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음식을 조절 하는게 엄마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입맛도 지금껏 먹었던 것은 자극적으로 구미가 당기는 건데 지금 주는 음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는 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부담도 엄마로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토피가 거의 없는 아이들도 부담이 되고 잘 이해를 못하죠. 왜 나는 아토피가 아닌데 나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이러기 때문이에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우리는 이걸 먹고 싶은데 정현이 아토피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큰 애는 치즈과자도 자기는 먹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먹지 못하죠. 또 큰애가 유독 먹고 싶은게 있어도 우리는 사주고 싶은데 동생이 아토피니깐 못 사게 하게 돼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둘째도 소희랑 같은 유치원에 다녀요. 현장학습에 갈 때 점심하고 간식을 싸오라고 하면 저는 과일을 싸주거든요. 그런데 과일은 아무도 안 싸오고 과자에 뽀로로 음료수 사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엄마들도 소풍가니깐 아이들 기분 맞춰 주려고 과자 이런 거 싸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둘째애도 소

회도 간식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둘째가 왜 친구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소희가 아토피면 소희만 안사주면 되지 나까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돼요. 너는 되고 소희는 안 되고 그러기도 좀… 소희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한번만 주지 뭐 이러다가도 한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니깐 안 되지 그러다가도…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먹는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한편,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와의 음식부분 뿐만 아니라 놀이를 할 때에도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를 더 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개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말길을 다 알아들으니깐 엄마가 야단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오빠도 별로 야단을 안치고 동생은 아토피가 있으니깐 봐주고 자기만 많이 야단맞고 소외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먹는 거나 놀이 부분에 있어서요. 둘째랑 셋째가 같은 성별이니깐 같이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픈 아이를 배려하려는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둘이 놀다가 동생이 잘못된 경우라도 언니가 봐줘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우니깐… 둘째 아이가 이제 밤에 쉬가 안 마려운데 쉬가 마렵다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염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산부인과에 갔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어요. 지켜보니깐 그 약을 먹으러 가면서 자기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면 엄마가 신경을 써주는 구나… 그래서 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둘째를 보니깐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위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하라 어머니는 놀이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에 비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더 배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아토피가 거의 없는 둘째 자녀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 밤마다 소변이 마렵다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다. 하라 어머니는 둘째 자녀의 이상 현상이 엄마의 관

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토피 자녀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하라 어머니 이외에 소희 어머니도 세 명의 자녀 중 셋째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하였다. 소희 어머니도 놀이갈등 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더 위하였다고 말했는데, 다른 자녀의 시샘과 아토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로 인해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큰 아이들이 “엄마는 왜 소희 편만 들어?”, “소희만 왜 이거해?” 이런 부분… 소희가 잘못을 했는데 다른 큰애들만 혼내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아토피 애한테 마음이 쏠리는게 있어요. 짠하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바꿨어요. 노는 부분에 있어서 소희가 잘못했다고 소희 편을 들어 줄 수 없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해줘야지 나중에는 자기를 예뻐하는걸 알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더라고요. 큰 애는 또 그런 거 가지고 시샘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서 잡았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음식조절과 놀이부분에 있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에게까지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놀이 갈등 시에도 아토피 자녀를 더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쏠리는 부모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다른 자녀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와 아닌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모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 2)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 유아교사의 아토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수업 시 겪는 어려움, 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1)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 - “부모와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아토피가 심해진 경우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 및 치료 목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호 어머니와 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큰애는 어린이집 다니는 중간에 야채 스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한 달 정도 먹으면 석 달까지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먹어보니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달 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원장님과 선생님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걸 말하는데서 부터 원장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그랬어요. 싫어 하는게 느껴지더라고요. (중략)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치료하고 보내십시오. 자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들어올 애도 없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비워두겠다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잘 치료하고 와라” 라고 해주면 부모도 힘이 날텐데... 아토피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한테 응원해 줄 수 있는 건 엄마를 둘러싼 공간이잖아요.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 이웃들인 거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개월씩 탐색하고 그 과정을 계속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이 이루어내는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거든요. 인위적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고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놀이를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 하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교육과정이 너무 좋아서 보냈어요. 이제 졸업을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게 민지의 상황에서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석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중략) 졸업을 하려고 결과물들이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서 싹 나오잖아요. 그 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민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결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참 아프고 이게 결국 아토피 때문인 거예요. (중략) 그런데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좀 그런 얘기 같지만 나는 한 달 빠져도 교육비 다 내고 보름을 빠져도 한 달 거 다 내고 아무리 결석해도 내 것은 싹 다 내는데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 마음이 안보일까? 이 아이가 못 와가지고 이 아이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에게 정해진 것이 있고 아이들은 물 흘러가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빠졌다고 개를 억지로 넣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졌다고 한다.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연치료법의 하나인 야채스프라는 것을 시도하였다. 야채스프는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호전 반응을 일으켰다가 이후 아토피를 낮게 하는 장기간을 요하는 치료법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어 한 달 동안 보내지 못하는 사실을 기관장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상 문제로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의 지지해 주지 않은 태도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번째 사례의 민지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민지 어머니는 자녀를 유아흥미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시행되는 유치원에 보낸 부모다. 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가 심한 상태이라 하였으며,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밤마다 제대로 된 잠을 못 잔다고 하였다. 이에 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오전 등원 시간에 맞추어 유치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유치원에 결석하는 날이 빈번하였으며, 아토피를 포함하여 비염과 천식을 앓고 있어 링겔을 맞으러 병원에 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민지의 유치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민지는 등원 시간에 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것과 잦은 결석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지 어머니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민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녀가 기관에 나갈 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녀를 지지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속상함을 내비쳤다.

## (2) 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

### - “자녀의 아토피 관련 부탁이 수용되지 않아요”

부모들은 유아교사에게 점심식사 시 자녀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음식을 조절해서 제공할 것과 피부가 건조할 시 보습제를 발라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치료약을 시간에 맞추어 먹여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도록

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기관에 보낼 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관련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이야기하였다.

보통의 어린이집은 아이 하나를 일일이 맞춰서 해줄 수 없다고 해요. 아토피는 개인의 질병이라 생각을 해요. 아토피 치료 때문에 아이에게 야채스프를 먹였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면 “감기약은 받아서 먹여 줄 순 있지만 한약은 안된다 한약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까지 그걸 연계해 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 올 때 까지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아토피가 좋아지지 않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교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토피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요즘 일반적으로 워낙 가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깐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다 그런 거지, 자기 몫이지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구 한사람만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부탁을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4)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에 대한 아토피 관련 부탁을 수용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기관이 아토피를 개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아토피의 보편화로 인한 유아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토피 관련 부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유아교육기관에 머물기 때문에 아토피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자녀의 아토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아

토피 관련 부탁을 협조하지 않을 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 나온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애초에 유아의 아토피 관련 부탁을 거절하였다면 아래의 사례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에는 아토피 관련 부탁을 수용하였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곳이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으며, 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께 아이 아토피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보습제를 딱 보니깐 선생님이 안 발라 주셨더라고요. 아이 피부는 아토피가 더 올라와 있고요. 그냥 약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텐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지훈 어머니, 2011. 09. 23)

아이 간식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아이가 밀가루로 만든 빵은 안 돼서 보리로 된 찐빵을 제가 보냈어요. 보리빵은 냉동 보관을 했던 거고 아침에 제가 데워서 보내도 식어 버리니깐 어린이집 앞에서 선생님이 맞이해 주실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정은이가 아토피 때문에 간식을 찐빵으로 보낸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면 차가워지니깐 선생님이 점심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줄 수 있냐”고 하니깐 “아 알았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후에 간식 어땀어? 따듯한거 먹었어?” 물어봤는데 정은이가 “아니, 차가운거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맞이해준 선생님이 담임선생님께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담임선생님은 간식을 주실 때 보시면 차갑고 딱딱한걸 알 텐데... 물어보니깐 선생님이 공개 수업 준비로 너무 바빠서 자기가 꺼내주지 못하고 아이보고 꺼내서 먹으라고 했어요. 참 그것도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다섯 살짜리 애가 지 간식을 혼자 꺼내 먹은 거잖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유아교사에게 보습제 바르는 것과 유기농 간식 제공 부탁을 하였으나 유아교사가 기억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자녀를 보냈던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 되어지는 일반적인 음식은 자녀의 아토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자녀의 아토피를 위해 야채스프 치료법을 시행하는 과정이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아토피 치료목적으로 보리로 된 친환경 간식을 기관에 보낸 것이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부탁이 담임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의 아토피가 있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신경 부족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에는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유아교사 한명이 다수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하라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데 아토피가 있으니깐 음식 관리해 주세요. 보습제 발라 주세요. 조심시켜 주세요. 애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원장님과 선생님이 있는 원과 그것마저 안 하거나 소홀히 하는 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신경 쓰려면 대단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반에 20명씩 있는 경우에는 개만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신경을 쓰려고 애는 쓰겠죠. 그런데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인력 돌아 가는게 뻑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선생님이 한반에서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럴기 때문에 이 아이만을 위해서 간식이라 던지 음식을 철저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이에 따라 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아토피 관리 부탁을 유아교사에게 했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소화가 못 먹는 거는 제안해 주시길 바랬어요. 굶을 때 수시로 보습제를 발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은 했어요. 그런데 열 여섯명이 되는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든데 소희한테만 집중을 해서 굶는지 안 굶는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부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두번 정도는 발라 줘어도 굶을 때마다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에 제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들에게 자녀의 아토피 개선과 치료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부모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기관이 있었으며, 부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유아교사가 있었다. 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부모와 기관의 연계 부족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유아교사의 아토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 “선생님은 아토피에 대해 잘 몰라요”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간에 소통을 막는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정호 어머니, 승아 어머니,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들을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세요. 전염병에 대해선 때가 되면 유인물, 프린트, 전단지를 보내고 아이가 조금만 뭐가 나도 전화 와서 “아이가 이런데 병원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요즘 뭐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정보도 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 특히 아토피에 안 좋은 알레르기 물질들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보통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유제품, 견과류 땅콩, 털 있는 과일 복숭아가 안 좋잖아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없으시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그냥 뭐 가려우면 약 발라주면 되죠. 그 정도 밖에 몰라요. 애가 음식을 어떻게 가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아토피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아이들은 다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4)

제가 애 아토피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토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런 쪽에 많이 아시는구나 느꼈던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아이 음식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전달하는게 다예요. 선생님이 아토피에 대해서 모르시니깐 더 이상 우리 애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유아교사들이 전염병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지만 아토피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승아 어머니도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으며, 유아교사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 사례의 소희 어머니도 아토피 관련 지식이 유아교사에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지식 부족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유아교사와 공유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아토피가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금방 두드러기가 날 수 있어요. 애가 선생님이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깐 선생님 눈치 보느라 억지로 다 먹고 집에 와서는 우툴툴돌 올라오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것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안 그런 선생님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너만 남기면 안 되잖아 이러시면서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토피에 대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두 명의 자녀는 모두 아토피를 지니고 있었다. 승아 어머니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초등학교 교사 및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였다.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유아의 개별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아토피 자녀에 대한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지도가 실행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 간에 활발한 소통을 막고 있었으며, 아토피 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 간에 아토피 유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없이 부모가 유아교사에게 아토피 관련 부탁만을 하게 되는 수준에 그

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4) 수업 시 겪는 어려움 - “간지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수업 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였다. 이는 주원 아버지와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아토피 아이들을 신경 못쓰면서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있죠. 선생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면 자기가 간지러운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옆 반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아토피 아이를 딱 놔버리면 그 아이는 누구도 돌봐줄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상처 아닌 상처죠. 버림받은 상처가 되는 거죠. 주원이는 대부분 수업이 안들어가요. 굶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간지러우면 굶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굶어도 선생님이 봐줄 수가 없으니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 수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개를 굶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빠져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애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같이 하자” 이러니깐 또 안할 수도 없는 거죠. 보면 손톱이 시뻘겋게 물들어서 와요. 그게 피예요. 선생님은 개가 굶는게 신경 쓰여서 그럴 때에는 참여를 안 하고 갔으면 하시더라고요. (중략) 수업시간에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간지러워서 힘들어 할 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마음을 알아 줬으면 하는 건데 너무 큰 바람인거죠. 내가 상대적으로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일일이 손이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안 볼 수 없는 나이잖아요. (중략) 그런데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

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선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받아 들여 지니깐 애가 마음을 다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주원 아버지는 자녀가 수업 시간에 아토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시 다수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유아교사에게 자녀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원 아버지는 유아교사가 아토피 자녀를 도와주기 않을 경우 자녀가 큰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원 아버지의 자녀는 글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두 번째 사례의 승아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약해지는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시기일 경우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승아 어머니는 다수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야 하는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사들이 많은 유아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자녀를 도와 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해와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고 승아 어머니는 이야기하였다.

위 사례들을 살펴 본거와 같이 아토피가 심한 유아들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활동을 할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은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의 심리 및 정신적인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들이 수업 활동 시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유아교사가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5) 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 ①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문화

- “사탕, 과자는 안 좋은 음식이에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먹는 음식을 중요시 여겼다. 이는 음식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실제로 음식이 자녀의 아토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 즉, 부모들은 음식으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토피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문화가 자녀의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뿐만 아니라 아닌 유아들의 건강도 해치는 요인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정호 어머니와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침에 어떤 아이가 오면서 엄마가 줬다고 과자를 한 봉지를 사왔더라고요. 아침 간식부터 과자, 쿠키, 비스킷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도 조금씩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다 주더라고요. 전 이런걸 아침부터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영을 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친구들과하고 나누어먹으려고 가지고 온 건데 그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토피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마트

에서 파는 과자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것이고 아이들의 식습관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아침 간식 때부터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옛날에 다녔던 어린이집은 애가 올면 달래는 식으로 사탕을 줬어요. 그걸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받아 봤네요.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소희도 애기니깐 친구가 먹는데 자기도 먹고 싶죠. 그러다 보니깐 선생님도 그걸로 실갱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하다가 지치시니깐 주시긴 하겠지만 가지고 오면 저는 안 좋죠. 그런게 아토피랑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깐요. 기관에서 운다고 사탕을 주기보다는 다른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그 어린이집을 나가야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였다. 위 사례에서 정호 어머니는 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가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과자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명목 하에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간식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호 어머니는 생각하였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과자와 같은 간식을 유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주지만 아토피가 있는 유아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먹거리 환경은 아토피가 있는 유아들을 포함하여 일반 유아들에게도 좋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유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정호 어머니는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사례의 소희 어머니는 자녀가 현재 유치원 다니기 전 민간 어린이집에 다녔다고 하였다. 실제 소희 어머니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토피가 심해진 경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 지 않았다고 했다. 소희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가 심해진 이유로 다양한 요인

이 작용했다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로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아교육기관의 사탕을 주는 분위기가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희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를 달래기 위해 사탕을 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소희 어머니는 달래주기식으로 주는 사탕도 아토피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탕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 ② 유아교육기관의 생일파티 - “생일파티 ... 아토피가 올라와요”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열리는 생일파티를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지는 않을지 걱정되게 만드는 날로 여기고 있었다. 즉, 생일파티 시 먹게 되는 음식이 자녀의 아토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생일파티 때 과자를 먹게 되잖아요. 민정이가 과자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거든요. 그런 날엔 신경이 조금 쓰여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어린이집에서 생일 때 케익을 사오라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떡 케익을 보냈어요. 올해는 다른 애가 생일이 같이 있다고 그 집에서 케익한다고 요구르트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휴, 그런 날은 또 먹는 거야... 과자, 케익... 아토피가 더 올라 오겠죠. 요구르트는 집에서도 안먹이는 건데...

(지훈 어머니, 2011. 09. 30)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일파티 시 먹게 되는 과자, 케이크, 튀김, 치킨 등과 같은 음식은 자녀의 아토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였다. 이에 평상시에 자녀에게 되도록 주지 않고 제한을 두는 음식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일파티 시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자녀만 먹지 못하게 할 경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여겨 음식을 먹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생일 파티 이후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를 겪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생일파티 같이 유치원 행사가 있을 때 엄마들이 음식을 해오잖아요. 아휴...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 음식, 팝콘, 치킨 이런 걸 해 와요. (중략) 아이들이 다 먹는데 애만 다 못 먹게는 못해요. 선생님이 “너는 먹으면 안돼” 이러면 아이가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게 먹고 집에 와서는 약을 먹이거나 굶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한 두달 가다가 조금 더 좋아지다가... 평생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생일잔치인데 아이들은 다 먹고 자기만 못 먹게 한다고 해봐요. 선생님이 자기만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피부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요. (지훈 어머니, 2011. 09. 30)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의 자모회 시 생일파티 음식 중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뺄 것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제안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토피가 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아토피가 아닌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 혼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치킨 그런 음식은 뺏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엄마들이 그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보통 이럴 때, 생일 때 한번인데 먹여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그런 말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뭐 유난스럽게 키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유난스럽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집은 아토피니까 아토피 애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엄마들의 인식 문제예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의 사례들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생일 파티 시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생일 파티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자녀의 아토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먹거리 관련 제안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장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6) 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 -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될 텐데...”

부모들은 아토피 부위를 긁어서 자녀의 피부상태가 색소침착이 되거나 흉터가 생긴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자녀들이 훼손된 피부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피부가 외부에 보여 지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관계 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희의 경우 상처가 빨리 있다 보니깐 반팔 입는 거를 싫어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되게 싫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팔이 팔꿈치 위쪽 정도에 오면 팔 아래 까지 땡겨요. 그리고 안 내려오면 짜증내요. 이걸 아파서 그런 거지 이상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중략) 아토피는 긁다 보면 살이 시커매 지거든요. 소희도 살이 시커매요. 색깔이 회복되진 않더라고요. 소희가 생각보다 낮도 가리고 소심한 편이에요. 아토피가 더 심해지면 혹시나 아이들안에서 놀림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요. 피부가 깨끗하지 못해요. 까무잡잡한 것도 아니고 등성등성 얼룩덜룩한 그런 피부 있죠. 여자 애라 걱정이 많이 되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이번 여름이 됐잖아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긴팔을 입고 나가다가 날씨가 더워서 반팔을 입히니깐 정호가 “뭘야! 반팔이잖아, 안 입어! 안 입어!” 그러는 거예요. “왜 정호야, 더워, 이거 입어야지” 그러니깐 “싫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혹시 싫어서 “왜? 여기 이거 때문에?”(팔 안쪽에 있는 아토피 부위를 가르키면서) 그러니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가 피부 때문에 그러는걸 보고 혹시라도 어린이집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게 힘든 거는 아닌지 아토피 때문에 애들이 뭐라고 할까? 한마디라도 할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에서 나온 소희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자녀는 현재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은 아직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토피로 인한 피부상태와 자녀의 위축되는 모습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부모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 자녀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부모는 승아 어머니와 주원 아버지였다.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얼굴에 아토피가 드러나 있고 진물이 나오는 상태였다. 이에 승아 어머니는 깨끗하지 못한 피부로 인해 자녀가 또래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며 속상한 마음을 나타냈다. 주원 아버지는 자녀 스스로가 아토피를 병으로 인지하여 외부에 보여 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자녀와 친구들 모두가 아토피를 병으로 인식하는 것은 또래관계 시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이 얼굴이 빨갛고 보라색이고 자주색이고 얼굴에 진물이 나니깐 아이들이 “재, 얼굴봐! 이상해”, “개가 만지진거는 지저분하다, 만지지마!”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피하니깐 소외감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고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4)

아이들이 아직 인지가 안 되니깐 아토피를 병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해 해요. 보이니깐 창피한 거죠. 주변 아이들도 아토피를 병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요. 병이긴 병이지 그런데 이제 마치 옴은 피부병처럼... 아이들의 인식이 그러니깐 서로 서로 친구와 어울릴 때도 부담스럽죠.

(주원 아버지, 2011. 08. 13)

한편, 민지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가 심한 상태지만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지 어머니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부 상태 외에도 자녀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였다. 이에 아토피가 전적으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민지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피부가 종종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친구들의 놀림이 지속될 경우 자녀에게 열등감이 생기는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유치원에서 친한 친구가 하는 말들이 “너 아토피 옴는다 저리가라”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애가 빨갈게 가면 “아토피 옴는다 저리가라” 막 이래요. 그러면 민지가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요. “아토피가 옴는다고?” 하하하 막 웃으면서요. “민지야 니가 안아 줘봐라, 옴는지 안옴는지 한번 보자고 해봐라. 엄마 여기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옴마? 안옴마? 안 옴겠지? 아토피는 옴는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일 전에 민지 친구들 하고 같이 만났어요. 해니가 진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민지가 오니깐 진아가 민지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깐 해니가 민지한테 “난 민지가 싫다. 민지 아토피 옴으니깐 저리가라” 이러더라고요. 잘 지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개한테 가서 막 안더니 “니 한번 아토피가 옴는지 안옴는지 한번 볼래?” 라고 했어요. (중략) 그런데 그런 말들이 상처가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열등감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계속 들으면 아 내가 그렇게 좀 있나보다 남들한테 튀는 뭔가가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서 아토피가 심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아토피가 초등학교에 가서도 지속 되거나 심해질 경우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실제로 승아 어머니의 첫째 자녀는 아토피가 영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초등기까지 지속된 경우였다. 승아 어머니는 자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였으나 아토피 피부로 인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아인 학년 대표를 할 만큼 적극적이고 매사에 리더십도 강한 아이였어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아이였는데 5학년쯤 되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그걸 트집 잡고 왕따 이유로 삼더라고요. 그때 왕따를 시킨 가장 큰 이유가 외모에 한창 예민해지는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의 피부상태를 가지고 별별 모함을 다 했답니다. 온갖 설움을 다 겪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도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키웠는데 그게 아이한테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군요. 한 때 아이가 우울해 하고 그랬었죠. (승아 어머니, e-mail, 2011. 10. 18)

위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가 아토피가 심할 경우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받으며, 또래들에게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토피가 심해도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유아의 연령과 유아의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토피가 거의 없는 유아들은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아토피가 거의 없을 경우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초등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아동의 사례를 통해 아토피가 초등기의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분류되었다.

### 1)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구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 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 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좌 활성화, 가족을 위한 아토피 심리 치료 지원, 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 지지,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으로 나타났다.

#### (1)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과 한의원에 지출되는 비용과 이외의 자연치유법, 보습제 사용, 민간요법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부모들은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자녀의 아토피를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은 국가에서 소득이 적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병원에 갈 때 보조를 해 주면 좋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 말도 있어요. 없는 집 자식들이 아토피가 더 잘 걸린다고요. 이것도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기초나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민정 어머니, 2011. 05. 29)

뭔가 검사받는 거에 혜택을 준 다던가... 뭔가 큰 비용을 들어서 검사를 해야 하거나 아토피 진단이 확정이 되면 몇 프로 할인을 해줄 수 있고... 의료 혜택이 괜찮은 거고요. 검사할 것들도 많아요. 또 병원에서 가는 사람은 병원에서만 치료 한단 말이에요.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한약도 먹여야지 발라야지 씻어야지 비용이 더 커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준다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9)

한편, 연구에 참여한 정현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어떤 것에 의해 반응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아토피 관련 검사를 해주지 못했다고 하였다. 정현 어머니는 국가의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일단은 내 아이의 상태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가려야 할 것이 착착 나오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좋죠. 그런데 대학 병원 가서 알아봤을 때 20만원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너무해요. 저 20만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민들한테는 20만원이 아주 큰돈이에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뭐가 원인인지 알면 도움이 되요. 솔직히 그 검사를 하기 까지 엄마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애 검사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비싸 부담이 커서 안한 거예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일부 부모 중에는 아토피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 너무 비용이 비싸면 시도도 힘들거든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치료라는게 장기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토피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과연 자격 조건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거기서 소희는 제

외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던 지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위 사례에 나오는 소희 어머니는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다. 소희 어머니는 저소득층 가정은 아니었으나 세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토피 자녀로 인해 지출 되는 비용은 소희 어머니의 부담감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치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희 어머니는 국가에서 비용지원을 해주게 되도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 아토피 관련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 .

## (2) 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

소수의 부모들은 아토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아토피 캠프가 일부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아토피 캠프에 대해 모르는 부모도 있었고, 들어본 경험만 있는 부모 또는 캠프에 참여를 한 부모들도 있었다. 이에 아토피 관련 캠프에 대한 인식이 부모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할 시 도움이 되도록 부모와 자녀를 위한 아토피 캠프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토피 캠프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토피 관련 정보들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하였다. 또한 검증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토피 캠프가 실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캠프가 꼭 몇 박 며칠이 아니고 하루라도 아이하고 같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서 엄마들이 음식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고 아이 관리하는 것도 알려주면 도움이 되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하고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아토피 아이들은 생활 패턴이 보통 사람들이랑 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거리라 던지 환경부분에 있어서요. 엄마도 있지만 아이도 같이 가서 실제로 합숙을 한다 던지 샤워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하고 마사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까지 알고 있어요. (중략) 그런 장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정수 어머니, 2012. 01. 22)

아토피 캠프를 하는 동안에 엄마들이 이런 식단 통해서 우리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쓰고 있었는지 눈도 생기고 그 동안 몰랐던 지식들을 알게 되니깐 그게 교육 효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캠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어중이떠중이들이 건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약에 나라에서 허가를 하거나 혹은 시에서 허가를 하면 정말 검증된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게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한편,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본 경험이 있었던 부모이다. 그러나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자녀의 양육, 비용 부담, 국가주체가 아닌 점,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캠프 같은게 있긴 해요.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긴 해요. 좋다고 하니깐...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소희만 있는게 아니라 언니 오빠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다 참여하면 그것도 비용 문제가 생기니깐요. (중

략) 사실은 캠프에 참여 하는 것만 해도 비용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업하고 협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황토집 경험하고 2박 3일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황토집은 제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에 나와서 사는 데... (중략)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찾아봐도 참여하는게 힘든 것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한편,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에 참여했던 부모이다.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 시 자녀에게 집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캠프가 2박 3일 짧은 일정이니깐 캠프 기간에는 마음껏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도록 집에서 못해주는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쪽 앉혀 놓고 교육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미 엄마들은 아토피에 대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레크레이션 강사랑 신나게 놓고 그런 거요. 엄마들도 그때 같이 가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낼 수 있는 거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도 아이도 풀어내야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구나 그러면 애도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만 4세 자녀와 만 11세 자녀는 모두 아토피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승아 어머니는 두 명의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아토피 관련 정보를 습득한 부모이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 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화 활성화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치료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아토피 치료의 결정적인 영향은 엄마예요. 엄마가 생활환경부터 음식까지 다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역에 보면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토피에 대한 정기적인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특히, 부모들은 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을 통해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희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치료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민간요법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것도 있어서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강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지금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병원 따로 민간요법 따로 대체의학 따로 한의원 따로 다 장사 속에 하잖아요. 각자가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맞고 안 맞고 그 기준을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실험을 해보던지 해서 지역으로나 아토피 센터나 알레르기 센터에서 부모들에게 이런 속설이 있지만 이건 아니다 병원 치료법은 아니지만 대체 의학

에서 이렇게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어떤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줘  
으면 좋겠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의 소희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 한의원 치료, 민간요법, 보습제 사용을 시행했던 부모다. 소희 어머니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거나 개선이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하였다. 이에 소희 어머니는 치료방법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가에서 치료방법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길 바라였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교육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위 두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도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병원 치료, 한의원 치료, 민간요법, 보습제 사용을 했던 부모다. 정호 어머니는 자녀에게 시도 했던 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해도 자녀의 아토피가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에는 대체요법 중에 하나인 야채스프 자연치유법으로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해주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정호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치료방법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세워지길 기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센터를 통해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일부 부모는 지역사회에서 열렸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토피 관련 강좌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이는 정수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교육 시켜주는 거 정말 좋았어요. 엄마들 많았어요.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 하는데 보건소에서 했었거든요. 강북구에서 그걸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강북구에서 아토피 부모교육이라고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부모들이 보고 올 수 있게 초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 구체화 하고 보완해서 실제로 해당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엄마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수 어머니, 2012. 01. 22)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수 어머니는 서울지역의 보건소에서 아토피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토피 관련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정수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으로 인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아토피 관련 교육 내용을 더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부모들에게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길 바라고 있었다.

#### (4) 가족을 위한 아토피 심리 치료 지원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어머니 또는 다른 가족들 모두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에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정호 어머니와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아이랑 엄마한테 심리 치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토피라는 게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처도 엄청나데요. 항상 “너 왜 긁었니? 긁지마!” 부모가 이러니깐 아이가 “나는 긁으면 안 되는데... 긁어서 말을 안들었다...” 그런 좌절감이 있어요. 그리고 욕구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또 엄마가 “먹지마! 안 돼!” 강압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할 때 아토피 질환 치료도 있지만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많이 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료를 잘 해야 하는 부모도 심리치료를 같이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마음을 다 잡고 하지 않으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아토피 치료를 하려면 의식주를 다 바꿔야 되요. 그리고 아토피 아이를 고치는데 착오가 너무 많아요. 정말 엄마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약해지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중에 멈춰 버리면 결국엔 고스란히 아이가 감당할 방법밖엔 안 되겠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아토피가 심하면 가족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형제들은 아토피 아이한테 심적으로 물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요. 그래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가족 차원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생각해요. 다른 형제들이 “엄마는 왜 재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화내는 거야?” 이러는데 물론 아토피가 얼마나 심각한지 곁에서 보면 알긴하겠지만 짜증으로 돌아보는 엄마의 반응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다른 형제들도 치료해 줄 필요가 있죠. 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 할 것 같아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정호 어머니는 자녀가 간지러움을 참아야 되는 것과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좌절감과 욕구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좌절감을 겪는 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을 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세 자녀를 양육하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아토피가 없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다. 하라 어머니는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더 배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하라 어머니의 둘째 자녀는 엄마가 아토피를 지닌 동생을 더 예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라 어머니의 둘째 자녀는 밤마다 소변이

마려운 이상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아토피가 없는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토피가 없는 자녀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토피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길 바라고 있었다.

#### (5) 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 지지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갈 시 의료진의 자녀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스테로이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하라 어머니와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스테로이제제니깐 의사로서는 “이거 바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쉽게 “일주일 바르면 개선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일주일 바르면 개선되니깐 그 의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들은 그걸 바르면 증상이 멈추면서 안 일어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깐... 거기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중략) 저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깐 의사한테만 의존하게 되는데 좀 자세하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중에 우리 아이는 어떤 경우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소견과 양심대로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깐 심리적으로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연고 받아서 쓰는 것도 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위에는 몇 프로 쓰고 어느 부위에는 몇 프로 쓰고 그런게 있어요. 일본은 조금 더 체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제에 거부감을 굉장히 느껴서 안 썼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한데요. 그걸 쓰면 부작용도 있

지만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접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연고 처방만 하고 그냥 “이거 쓰세요”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에요. 받아 오긴 해요. 사실 찜찜하긴 한데 조금씩 얇게 펴서 발라주거든요. 아토피 전문 병원이 아니고 소아과 피부과에서는 특별하게 자세한 처방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연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주워들기만 했지 정확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위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갈 시 의료진의 스테로이드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자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하라 어머니는 의료진이 스테로이드의 지속시기에 대한 것과 자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위 사례의 소희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한방, 민간요법, 보습제 사용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 하였는데 현재에는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TV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난 이후 부터였다. 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희 어머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며,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아토피에 좋은 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며, 약 처방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에 소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길 원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게 될 시 의료진의 지지해 주지 않는 태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들은 의료기관이 부모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곳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하라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세한 설명 그리고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과 바른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엄마들은 그 소망 하나 붙들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일반병원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도 봐주셔야 하는데 안 그래요. 아토피라는게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질병인데 우리가 벌레가 탁 물리면 약 발라서 좋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피부병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건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약 처방 해주고 좋아지려면 평상시에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잘해줘라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자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의료진의 처방만 내리는 태도는 부모들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치료하고 양육할 시 심리적인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유아교사의 인식부족, 자녀의 아토피 관리의 미흡,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주변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하였다. 부모

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도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아토피에 대해 잘 모르고 아토피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누구나 다 굶고 잠도 못자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토피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아이를 이해해 줄 테니깐 일단 엄마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겠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에는 아토피 자녀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닌 놀이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자녀의 아토피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유치원 있죠. 그런데는 애들이 섞여가지고 아토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좋지 않고요. 그런 것 때문에 놀이학교 이런 곳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9)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부모들은 아토피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부 부모에게서 나타났으며, 현재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수화된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라 던지 전문가 한명 상주해서 심한 아이들은 그때그때 불러서 치료할 수 있으면 하고

요. 또 엄마들이랑 상담을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려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좋을 거 같아요. (정수 어머니, 2012. 01. 22)

부모들은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이 구성되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으로 교사들을 배정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아토피는 환경적인 문제랑 많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 유치원의 모든 시설들에서는 환경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친환경 자제를 사용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친환경 자체나 물품들로 설립을 해서 만들면 경쟁률은 심하겠지만 특히 아토피 엄마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특히나 엄마들도 어릴 때는 환경호르몬이 안 좋다는 걸 다 아니깐 벽지 같은 걸 하더라도 좋은 걸로... 친환경 벽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민 어머니, 2011. 09. 25)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두 세분 더 있어야 되겠죠.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안 좋을 때 피가 많이 나니까 그 애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아토피 아이들은 선생님 한명이 못 봐요. 아토피 있는 아이가 몇 명 된다고 하면 선생님 혼자서 케어 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문제도 가능하면 밖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면 아토피 아이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뛰어 놀 수 있게 해야지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겨낼 수 있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프로그램 자체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가려워 지거든요. 아토피는 마음에 조금 걸리는게 있으면 굶기부터 시작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강하다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짤 때에도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애들이 가렵고 따갑고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결코 탓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다 그냥 감기 걸려서 몸이 불편한거라면 코막힌거 처럼 좀 불편한 것 뿐이지 그거는 질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올 꺼니깐...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민 어머니, 2011. 09. 25)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되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유아교육기관을 지원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동이면 구성동에 어린이집이 많으니깐 그 중에 한 군대를 지정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환경을 고쳐 주고 식단도 조정해 주면은 굉장히 좋죠. 그 곳에서는 되도록 아토피아이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해서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지금 원비도 부담스러운데 그런데는 더하지 않을까요? 설립한다고 하면 국공립 차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적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은 학습용품도 친환경을 사용해야 되니깐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개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그 비용이 저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보내고 싶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일반 유치원에서 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니깐 기관에서 운영상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즘 아토피 아이들이 많으니깐 국가가 지원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시나 동이나 구 단위라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국가에서 시에 하나씩 구에 하나씩 설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가 너무 멀리 있고 갈 수 없는 곳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만약에 김포면 김포시에 하나 이럴게요. 그러면 보낼 의향이 있어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아토피 영유아들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 가깝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근접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세워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개인이 운영할 경우 비용의 문제로 인해 운영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원비에 대한 부담감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줄여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구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 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공,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모임 형성으로 나타났다.

## (1)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에게 아토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사에게 간접 경험이라도 사례나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해 주면 훨씬 교사들 마음이 아토피 아이들에게 열리겠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받아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교육 없이 아이들 상황을 모르면 힘든 것뿐이 안 되니깐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선생님이 “아휴, 요즘은 아토피가 많아요. 개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굵고 다 힘들어 해요” 이러세요. 많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애들이 “다 그런데 뭐” 선생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학적 문제도 영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려면 교사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토피가 일단은 원인적으로 왜,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이 되고, 어떤 환경일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정신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유치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 져서 마인드가 아토피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려 준다하면서 친구들한테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다니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애는 아토피가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어, 민지는 손바닥에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아래의 사례에 나오는 하라 어머니는 국가의 아토피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정보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유아교사들에게 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가 만성적 특성이 있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에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유아교사들의 아토피 관련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하라 어머니는 부모와 교사간의 아토피 관련 정보 교류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아토피가 지금 작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만성질환이나 마찬가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 아토피 부분이 교육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토피도 특수아동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교사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깐 부담이 덜 할 거고요. 교사와 부모 서로가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엄마들하고 이야기 할 때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그냥 “우리 아이 이러니깐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하는 거랑 “아 그렇지. 아토피가 이런 증상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교사가 말해 준다면 엄마도 선생님이랑 전화할 때 “아, 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최선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관련 부탁을 유아교사에게 하였으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호 어머니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현대 상황에 맞는 유아의 건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정호 어머니는 현대에 새롭

게 생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하였다.

선생님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교육을 해서 부모랑 같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토피에 대해 인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선생님들께서 유아기에 뭐, 유아기에 환경, 유아기의 건강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럴 때 유아들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했던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체적인 것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토피도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공부할 때 현대의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냐에 대한 이미 협정된 이론과 현대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아토피로 인해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업활동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시 음식 및 아토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겪는 어려움은 유아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오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겪는 아토피 자녀의 어려움은 자녀의 심리적인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승아 어머니가 유아교사의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유아교사들이 아토피가 있는 유아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실시되길 바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사람이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면 대처하는게 다르잖아요. 그저 막연하게 아토피는 간지럽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아토피 아이들을 도와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토피가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니깐 아이들이 상처받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들을 살펴 본 것과 같이 부모들은 아토피 관련 정보 교류 및 활발한 의사소통,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모와 교사 간의 연계 및 협력 등을 위해 유아교사들의 아토피 관련 지식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

### ① 아토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이해 교육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반 유아들에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정 어머니와,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아이들이 아토피라는 질병 때문에 기관에 다니면서 관계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아토피가 아닌 애들이 아토피 애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기관에서 아토피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일이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내 아픈 친구가 어떻게 틀린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그런 애들을 만났을 때, 같이 생활할 때 에티켓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특히, 부모들은 아토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에게 지도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아 어머니와 주원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인식 문제예요. 아이들이 뭐 이걸 전염병처럼 생각하거든요. 모르니깐요. “지저분해서 만지기 싫다, 옮을 것이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수영을 하러 가면 물속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수영장 갔는데 내가 들어가면 어떤 애가 안 들어간다는 둥 그래요. 아이는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깐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아이들이 아토피를 질병의 하나로 생각해요. 전염병처럼요. 환경적인 차원의 그런 건데 수두나 뭐 걸린 것처럼 “아토피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토피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그거죠. 아토피가 전염병인 것처럼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토피 애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거죠. 가리고 숨기고 그런게 있죠. 그러니깐 아이들한테도 질병이긴 한데 전염병이 아니라는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피부에 보이니깐 아이들은 옮긴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아닌데 도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가 얼굴에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자녀가 또래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다고 승아 어머니는 이야기하였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자녀의 아토피를 전염병이라고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또래들이 자녀를 기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가 없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원 아버지는 자녀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아토피를 전염병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아토피가 있는 자녀 스스로 또래들을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해 올바른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 중에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수방법을 이용하여 아토피 관련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민정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에 관련된 연극이나 아동극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해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토피랑 연결해서 동화 구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걸 일반 아이들과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보여주는 거죠. 아토피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전염병 같은게 아니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면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위 사례의 민정 어머니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였다. 이에 민정 어머니는 극이나 동화를 통해 유아들에게 아토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영유아기부터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과 아토피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때 아토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주체 하에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아래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 하나가 오면 다문화 가정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아토피는 안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원이나 기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질병이라는 말이 맞

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토피, 천식, 비염을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다면 교사들도 이해해야 되고 기관도 이해해야 되고 친구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는 아토피라 굶는구나” 우리 주변에서 그냥 흘러드는 그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받는 이해말고요. 그런 주관적인 이해 말고요. 객관적으로요. 아토피가 음식으로 있는 애들은 친구가 우유를 고마워서 줬는데 못 먹는다고 하면 서운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면 “아 재는 아토피가 있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줘도 먹을 수 없구나” 미리 이해할 수 있죠. “어 너는 왜 내가 줬는데 안 받아?” 선의를 베풀었는데 생기는 오해를 막을 수 있겠죠.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다문화 가정의 프로그램처럼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하라 어머니는 기관과 교사 또는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는 아토피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오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② 아토피 관련 먹거리 교육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와 연계된 먹거리 교육을 시켜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호 어머니와 지훈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왜 아이들 보면 화제 예방교육, 무슨 교육하잖아요. 그럴 때 먹거리 교육도 몸에 좋은 것, 안 좋은 것으로만 교육하지 말고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와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콜라, 치킨, 초콜릿 그런 것을 먹으면 아토피

피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또래의 유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완전법이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뭐 하면 안 돼” 해도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말 좀 같이 해 주세요” 하면 효과가 두 배되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잖아요. 아토피가 심하지 않은 아이도 후에 심하게 될 수 있어요. 안 걸린 아이도 후에 걸릴 수 있고요.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걸린 아이 안 걸린 아이 같이 교육해야 되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라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훈 어머니, 2011. 09. 30)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과 아토피 증상이 없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와 관련하여 음식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와 관련된 먹거리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음식으로 오는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 (3)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에 대한 예방과 개선을 위해 아토피와 관련된 부탁을 유아교사에게 할 시 유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지훈 어머니, 아영 어머니,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집에서는 실컷 먹고 싶은 것 안 먹이고 조절해서 갖는데 어린이집에서 다 줘버리면 “선생님은 주는데 엄마는 왜 안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에 가서 아토피가 올라오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아토피가 안 고쳐져요. 할 적에는 기관이랑 엄마랑 합심을 해서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훈 어머니, 2011. 09. 30)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안 되는 음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알맞게 주시길 바래요. 먹으면 안 될 음식들은 단호하게 주지 않고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9)

아이들은 자는 시간, 엄마랑 있는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1/3은 어린이집에 있고 세끼 중에 한끼는 어린이집에서 먹고 간식을 주면 거기서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은 식생활과 생활습관은 어린이집에서 다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방치를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환경에 노출 된다면 아이들이 엄마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토피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들은 더 혼란스럽죠. 나는 한다고는 하는데 전혀 개선 안 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부모와 기관이 협력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협력이 안 될시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하라 어머니는 부모와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4) 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공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음식이 자녀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은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 아토피 증상이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들은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고 개선 할

수 있는 요인이 음식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배경 아래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친환경 간식과 급식을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다른데서 단가를 낮추더라도 먹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국산에 친환경 제품으로 간식이나 급식을 해주면 좋겠어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옛날 우리나라 토속적인 음식만 먹어도 아토피는 개선 될 거라고 봐요. 원에서 먹이는 간식이 거의 요구르트예요. 제가 집에서도 안 먹이는게 요구르트예요. 그런 걸 먹으면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먹이는데... (중략) 애들 반찬도 나물이고, 간식도 고구마 찌주고 감자 찌주면 훨씬 나올 것 같아요. 음료수라도 차라리 요구르트 말고 보리차를 끓여서 먹이던가... (지훈 어머니, 2011. 09. 30)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심하게 만드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아토피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 빼고 식단을 구성하여 제공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아이가 먹으면 안 될 음식을 파악을 해서 식단을 짤 때도 애들이 피해야 될 걸 빼고 짜줬으면 좋겠어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기본적으로 등푸른생선이라던지 우유라던지 계란이던지 아토피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식단에서 조절이 되면 좋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기가 편하겠죠. 꼭 구별해서 개네들만 따로 식단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식단은 신경을 쓰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토피에 훨씬 좋죠. (주원 아버지, 2011. 08. 18)

한편, 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급식 배식을 할 시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빼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이 아이의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을 잘 파악해서 배식해줄 때 조절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토피는 한번 가렵기 시작해서 긁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는 조금 가려웠던 건데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면 이차감염 생기고 이게 점점점점 더 심해져요. 일단 애들이 긁게 되면 진물 나면서 이차 감염 오고 또 항생제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음식 조절이 잘 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식 조절이 되지 않아 아토피 증상이 심해졌던 경험이 있었다. 승아 어머니는 현재 유아교육기관 상황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위하여 식단 구성까지는 바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사가 급식 제공시 자녀의 아토피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잘 파악하여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아토피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5)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모임 형성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간에 서로의 양육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모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소희 어머니와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소희 같은 애를 키우는 엄마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힘들 때 이야기 하면 힘이 나죠. 사실 지금은 유치원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소희 아토피 있어”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내가 아토피 대해 이야기를 해도 크게 공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같은 입장이다 보면 서로 이해하면서 위로 하면서 정보도 얻고 그러다 보면 많이 힘이 되죠.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아토피 엄마들 모임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엄마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진짜 안 키워 본 사람은 몰라요. 매일매일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마음이 좀 정화가 되잖아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아이들을 더 편안히 봐줄 수가 있는데 엄마가 쌓일 대로 쌓이면 힘들고... 그게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아이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아토피 엄마들의 모임이 있으면 공감대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고 서로 나누다보면 해소가 될 수 있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첫 번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이 있을 시 부모들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승아 어머니도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 서로가 공감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 형성이 필요하고 인식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인터넷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터넷을 잘하지 않는 일부 부모들의 경우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쉽게 동참할 수 없는 모임이라고 여겼다. 부모들은 지역사회와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모임이 형성 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를 고치려고 꼭 의료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서로 동병상련이라도 마음만이라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위안과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교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그런 모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인터넷을

잘 안 해서 피부로 안 와달네요.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 집이면 어린이집, 학교를 다닌 다면 학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걸 어린이집에서 주도적으로 해주던지 주민 센터에서 해주던지 그런 매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유치원에서도 아토피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거창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두 세명이라도 모일 수 있게 유치원에서 연결해 줘서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한편, 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포함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모임 있습니다. 한번 나와 주세요. 그러면 쉽게 가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왠지 가야될 것만 같고요. 정기적으로 학부모 모임을 할때 아토피가 없는 엄마들에게도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아토피 엄마들이 사례 발표도 하면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 엄마들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도 되지 않을까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 모임 통해 아토피 증상이 없는 영유아 부모에게도 아토피와 관련된 정보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라 어머니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모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의 부모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분류되었다.

#### 1)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일상생활 속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잠을 못자는 고통, 부모의 심리적 고통,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오는 아픔, 외부 활동에 대한 어려움, 아토피 자녀와 아닌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가려움으로 인하여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idus와 Kerr(2001)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은 가려움증으로 인해 수면부족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들도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토피

피가 있는 영유아들은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대에 가려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김정원, 1993). 이에 따라 밤마다 자녀가 아토피 부위를 긁지 않도록 간지러움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부모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밤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에게 수면 부족과 체력의 한계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부모의 수면부족과 체력의 한계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에게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육체적 어려움은 자녀의 아토피가 심하거나 장기간 동안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부모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수면 및 휴식 부족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나혜경, 2006; 유일영, 김동희, 2004; 유일형, 김동희, 2006;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 2006)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아동의 가족들이 수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Chamlin, Cella와 Frieden(2005)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Stores 외(1998)는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수면부족 문제는 아동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의 간지러움을 최소화하고 수면을 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부모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유일영, 김동희, 2006). 한편, 박민수(2011)는 아토피 영유아 부모들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양육 도우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수면과 휴식 부족으로 인해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 양육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자신으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 전 자신이 먹은 음식으로 인해 자

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라고 인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의 아토피가 부모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의 지속시기와 아토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신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고 제대로 관리 해주지 못해 자녀의 아토피가 생겼다는 죄책감과 아토피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나혜경(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정은 영유아의 아토피 증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정휘정, 오철환, 조숙행, 1990). 이에 따라 부모들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져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자녀의 아토피 치료 과정에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병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부모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약을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인해 약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김민주, 최미혜, 2011;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 2006)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였으나 자녀의 아토피가 치료되지 않아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소(1999)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 부작용으로 인해 연고 사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의학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한 부작용 위험이 적은 아토피 치료제 개발 대한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무서움과 약의 한계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원에 데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의원 치료를 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쉽게 낫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한방요법을 멈추고 다른 치료방법을 찾거나 다른 한의원을 찾거나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는 다고 보고한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알로에, 목초액, 오소리 기름, 뱀딸기풀, 민들레 등을 이용한 민간요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요법 역시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거나 아토피를 더 악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부모들은 민간요법을 멈추고 자녀에게 맞는 다른 치료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효(2008)는 민간요법은 종류가 다양하며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부작용 위험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요법은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보고 하였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의 아토피를 낮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민간요법 시도 후 아토피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고 악화 될 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민간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위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학, 한방, 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러 가지 아토피 관련 치료방법을 시도하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낮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 시 혼란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아토피가 있는 자녀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약이나 보습제를 아토피 치료제로 속여 파는 장사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보습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아토피 관련 제품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 광고 및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아토피 관련 제품의 제조자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제조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미약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따라 아토피 관련 제품 제조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법적 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부모들이 아토피 관련 제품 홈페이지의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안쓰럽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무심코 하는 이웃들의 말로 인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주위의 말과 시선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200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특히, 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해 자녀가 상처 받을 것에 대해 우려 하였으며, 자녀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할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시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며, 자녀의 아토피 발병이 부모 탓이라고 느끼게 하여 부모에게 죄책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녀를 정상인이 아닌 존재로 구별하는 것 같아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자녀와 함께하는 외부활동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자녀와 놀러가는 일, 이웃집에 가는 일, 친지방문, 가족여행을 가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외부활동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녀의 음식 조절에 대한 어려움과 음식 및 환경에 의한 자녀의 아토피 악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휴가와 여행 또는 친척집 방문에 큰 제약을 받는 다고 보고한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여섯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를 함께 양육 할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아토피가 있는 자녀로 인하여 아토피 치료를 위한 음식조절이나 음식제한을 할 시 부모와 아토피가 없는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가 함께 놀이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더 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 환아를 둔 형제, 자매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있고(유일영, 김동희, 2006), 어머니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다른 자녀와 관계가 나빠진다고 보고한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부모의 차별적인 태도는 아토피를 지닌 자녀와 없는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부모들에게 아토피 자녀와 다른 형제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 2)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수업 시 겪는 어려움, 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토피 치료를 위하여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할 경우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 태도를 보일 시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아토피가 심할 경우 아토피 치료를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부모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빠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나갈 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의 지지를 바라고 있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해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교사가 부모와 영유아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과 유아교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가 아토피 치료를 위해 기관에 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가 편안하게 자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관장과 유아교사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시 부모에

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어 유아의 발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Cochran와 Brassard(1979)는 유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 중에는 유아가 학습을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는 아토피 유아가 치료를 받은 후 유아교육기관에 나올 시 교육적으로 자극을 주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자녀의 아토피 개선 및 치료를 위한 부탁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토피 관련 부탁을 기관 및 유아교사가 처음부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지장을 받아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아토피 관련 부탁을 유아교사가 수용했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을 시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사에게 아토피 관련 부탁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아토피 관리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아토피의 보편화로 인한 인식부족과 다수의 영유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토피는 생활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 되는데(김정은, 2011), 가정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부모들이 교육하고 돌봐 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아토피 영유아들의 교육과 관리는 유아교사가 담당해야한다. 유아교사들은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들이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고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박미혜, 2006). 즉, 현 유아교육 현장의 상

황에서는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의 질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모와 유아교사의 협력 체계가 형성이 될 때 영유아들의 아토피가 재발 되거나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유아들의 아토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 간에 아토피 자녀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부모들은 유아교사와 이야기를 할 시 유아교사에게 아토피 관련 지식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자녀의 아토피에 관한 이야기를 유아교사와 공유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아토피 관련 부탁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하여 피상적인 이해를 할 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며, 부모의 요구에 따른 식이요법과 환경청결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박미혜(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에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수업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다수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담당해야 하는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가 고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이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또한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이 간지러움 시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아토피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하지만 유아들의 간지러움이 높아질 경우 유아교사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반을 이끌어야 하는 유아교사에게 부담감 줄 수 있다(송효현, 2010). 이에 따라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영유아가 힘들어 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유아교사는 수업 활동 시 유아가 아토피로 인해 간지러워 할 경우 수업 활동을 재촉하기보다 유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부모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친구가 가져 왔다는 명목하게 과자와 같은 식품을 유아들에게 제공하거나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사탕을 주는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의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사탕, 초콜릿, 스낵류는 열량이 높고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없으며 다량의 설탕과 소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식품이다(조경자, 이현숙, 2006). 이러한 식품은 기본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 모두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다. 특히, 유아기는 식습관, 기호음식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전혜인,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과자 및 사탕 또는 튀김이나 인스턴트와 같은 식품을 제공하기보다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와 일반 유아의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을 달래기 위해 사탕을 제공하기보다 영유아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영유아들의 상태를 주위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생일파티를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일파티 시 먹게 되는 케이크, 튀김, 과자와 같은 음식은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들은 친구들이 음식을 다 먹는 상황에서 자녀만 먹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여겨 음식을 먹이고 있었으나 음식을 먹고 난 이후 자녀의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부모 중에는 자모회에서 생일 파티 시 유아들이 먹게 되는 안 좋은 음식들을 뺄 것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건강한 유아를 양육하는 다수의 부모들에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토피를 지닌 유아와 일반 유아의 건강 및 식품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습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먹거리와 관련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모들은 아토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아토피 부위가 노출 되는 것을 꺼려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또래관계 시 위축되지 않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또래와 외부관계에 배척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상처를 입지 않을 지 두려움을 가진다고 보고한 나혜경(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아토피가 심하거나 아토피가 얼굴에 노출 되어 있는 영유아들은 유

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여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중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특별히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도 했으나 친구들에게 빈번히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가 거의 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특별히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할수록 친구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양수진 외(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유아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이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조복희 외(200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황인애와 배지희(2007)는 유아의 외모적 특성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아토피로 인한 깨끗하지 못한 피부 상태로 인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토피 유아가 겪는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유아에게 고립감을 줄 수 있다(Chamlin, Cella, & Frieden, 2005). 또한 아토피를 지닌 유아에게 또래관계가 위축되게 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것은 아토피 영유아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는 아토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부 부모 중에는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아토피가 지속되었다고 하였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녀의 깨끗하지 못한 피부상태를 또래들이 보고 따돌림을 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기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초등학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초등학교에도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때부터 아토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분류되었다.

### 1)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구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 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 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좌 활성화, 가족을 위한 아토피 심리 치료 지원, 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 지지,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의료비용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부모들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과 한의원에 가거나 자연치유, 보습제 사용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지출되는 금액이 많기에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 중에는 자녀의 아토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비용 지불의 어려움으로 아토피 관련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아토피의 만성질환 특성으로 인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유일영, 김동희, 2006; 유일영, 김동희, 2004; Warschburger, Buchholz, & Petermann, 2004)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아토피 및 천식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강진구, 2011; 박종운, 2012; 박종일, 2010; 이주민, 2011; 허귀용, 2012). 이러한 정책 지원들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황이어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토피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아토피 관련 검사 및 의료비용 지원이 각 지역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확대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토피 관련 검사 시 부모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토피 캠프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었다.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토피 캠프를 통해 음식관리와 자녀의 습관 형성 및 아토피 관리 등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 받길 원하고 있었다. 또한 아토피 캠프를 실행 할 시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아토피 관련 정보를 얻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자녀의 양육과 비용 부담, 국가주체로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실생활과 연결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토피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모도 있었다. 아토피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부모 중에는 캠프 시 강의식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 보다는 자녀 양육에 지쳐있는 부모와 아토피 치료로 스트레스가 높은 자녀를 위해 집에서 해줄 없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다.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캠프를 실시하고 성과에 대해 보고한 최라현, 남은우(2009)는 아토피 캠프가 아토피 가정의 생활 개선 및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아토피 캠프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내용과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여 아토피 캠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지역사회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은 다양한 아토피 치료 방법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국가나 사회의 기관이 연구를 시행하여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부모들에게 교육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체계화된 기준을 통해 치료방법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 하는 기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역의 보건소에서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신현근, 2011; 진용준, 2011; 황기연, 2012). 이러한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이 각 지역마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들에게 다양한 치료방법에 관하여 올바른 기준을 세워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아토피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이 아닌 장기간 동안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기에 단기간의 교육으로 그치기보다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넷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토피 가정을 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해 주길 원했으며, 심리 치료 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할 시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 영유아들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과 식이제한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은 부모의 아토피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들은 가족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필요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아토피 가정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관련 교육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갈 시 의료진이 자녀의 상태와 스테로이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길 원하였으며, 부모를 지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의료진에게 자녀의 상황과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료진이 약 처방만 내리고 부모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치료진을 만나도 부모에게 자녀의 상태나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경우가 없고, 일률적으로 약이나 연고를 처방할 뿐 약 복용과 연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한 나혜경(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자녀의 어머니들이 스테로이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과 사용 여부에 대해 조언을 원하고 있다는 유일영, 김동희(2004)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에게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 및 사용방법 또는 아토피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친환경적으로 유아교육기관 환경이 구성되길 바라고 있었으며,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교사가 배정되길 바라고 있

었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유아교육기관이 운영되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부족과 아토피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는 환경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은 자녀의 아토피의 정도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를 키우는 일부 부모들보다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주장이 크게 나타났던 대안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선정하여 아토피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에 근접한 병설 유치원을 선정하여 한 반을 구성하고 아토피가 있는 유아에게 적합한 생활습관형성, 음식교육, 친환경 급식 제공, 적절한 활동을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유아들의 아토피가 치료되고 예방될 수 있는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초등학생이 된 이후 학교 적응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의료진과 영양사와 연계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유아교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토피에 관한 정보를 얻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2)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구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력 체계, 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공,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모임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습득에 대한 지원 요구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부분이었다. 즉, 부모들은 아토피가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아토피 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토피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부모와 교사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을 위해서 또는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김정은, 2011; 박미혜, 2006; 송효현, 2010) 보고하였는데,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모들도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유아건강과 관련하여 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필요할 시 건강 전문가와 연결시켜 줘야하는 책임이 있다(조경자, 이현자, 2006). 따라서 부모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들

에게 적절한 아토피 관련 교사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즉, 교사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에 아토피 유아에 대한 이해 교육과 지도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현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송호현, 2010). 또한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예비유아교사와 현장교사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사교육이 실행 될 시 부모와의 소통 문제, 부모와 기관의 협력 문제, 아토피 유아에 대한 지도방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해 아토피 관련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의 특성, 아토피 관리방법, 일반 유아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에게 지켜야할 에티켓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유아들에게 교육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이 아토피를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유아들에게 정확히 심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다양한 교수법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아토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으며,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처럼 국가적으로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에게 아토피와 관련하여 음식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이 유아들의 아토피를 악화시키거나 예방 또는 개선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토피와 관련하여 음식교육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토피 관련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즉, 아토피를 지닌 유아가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대처하고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 프로

그램을 구성해야한다. 또한 아토피를 지닌 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들도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켜 아토피에 대한 이해 및 예방차원으로 접근하여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토피 관련 교육내용으로 아토피 관련 이해 교육, 또래관계, 아토피 관련 음식교육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아토피 관련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기, 동극, 동화,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정부가 개입하여 아토피 관련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킬 시 유아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예방 및 치료 차원으로 실시되는 자녀의 아토피 관련 부탁을 유아교사가 협조하여 실행해 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넷째,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간식과 급식을 친환경 음식으로 구성하여 자녀에게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음식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된다면 자녀의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고,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현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의 아토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뺀 이후 식단구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지 않도록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을 잘 파악하여 배식 시 조절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김혜경(2009)은 친환경 식품이 아동들의 아토피 피부염을 호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정슬비(2011)는 친환경 급식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보다 친환경 급식과 영양교육을 실시 한 학교가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기 유병률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친환경 식품이 아동의 아토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를 지닌 유아의 아토피 개선 및 일반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급식 제공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를 줄인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의 아토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빼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음식을 추가하여 식단구성이 이루어져야할 필요도 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를 위한 식단을 구성 할 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의료진과 영양사와 연계하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아토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 간에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형성되어지길 부모들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이 형성되길 바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일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하여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의 양육 경험을 공유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이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들이 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와 아닌 부모들 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사회적지지 즉,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를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본 연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인원의 부모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수준 및 자녀의 아토피 정도 등 부모들의 배경 특성을 고려하여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알아본다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시 겪는 어려움과 요구에 관해서만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아토피 유아를 교육할 시 겪는 경험들에 대해 알아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통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한 지도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아토피 관련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강은주 (2010, 04, 19).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 아토피 유병율은 12.5% 증가. 진보신당, <http://news.naver.com>에서 2012, 05, 25 인출.
- 강의정 (2007). 유아의 연령과 성별 및 아토피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2(1), 23-36.
- 강정우, 정진우, 이은영, 김성원 (2009). 중증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19(4), 392-400.
- 강진구 (2011, 07, 15). 포항시 남구보건소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뉴시스, <http://news.naver.com>에서 2012, 06, 13 인출.
- 강태진, 이상로 (2010).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 관리. BRIC, 12(3), 1-25.
-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 (2012). 아토피 피부염. <http://www.e-allergy.org>에서 2012, 05, 25 인출.
- 곽은희, 김나애, 김달, 김은주, 정은주, 최연선 (2011). 아토피 영양학. 서울: 도서출판 미센.
- 곽은희, 김나애, 김달, 김은주, 정은주, 최연선 (2011). 아토피 테라피. 서울: 도서출판 미센.
- 곽은희, 김나애, 김달, 김은주, 정은주, 최연선 (2011). 아토피 피부학. 서울: 도서출판 미센.
- 국립독성연구원 (2006). 아토피피부염 바로알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8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
- 김민주, 최미혜 (2011).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지식, 치료지시이행 및

-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 17(4), 272-280.
- 김영미, 이윤미 (2009).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발병, 치료 및 생활습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1(1), 77-84.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은정, 김형옥, 박영민 (2008).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 부담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46(2), 160-170.
- 김정원 (1993).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 천식 및 알레르기, 13(3), 84-90.
- 김정은 (2011).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연구: 아토피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2004). 아토피피부염의 최신 지견.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14(1), 12-23.
- 김태윤 (2009).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최신 경향.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19(3), 209-219.
- 김혜경 (2009).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친환경 식품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영, 장은영, 심재훈, 김지현, 정영희, 박수화, 황은미, 한영신, 안강모, 이상일 (2009). 알레르기 가족력이 영아기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19(2), 106-114.
- 나혜경 (2006). 아토피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네이버 백과사전 (2012). 삼출. <http://100.naver.com>에서 2012, 06, 15 인출.
- 네이버 지식사전 (2012). 태선화. <http://terms.naver.com>에서 2012, 06, 15 인출.

-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2012). 아토피 피부염. <http://www.atopy.re.kr>에서 2012, 04, 27 인출.
- 두산백과사전 (2012). 아토피 피부염. <http://www.doopedia.co.kr>에서 2012, 05, 25 인출.
- 박미혜 (2006). 보육시설에서의 아토피피부염 유아에 대한 지도방안.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수 (2011, 09, 03). 아토피 탓 엄마 피로 줄이는 요령. kormedi뉴스, <http://www.kormedi.com>에서 2012, 04, 21 인출.
- 박영립, 박준 (2007). 아토피피부염의 병인. 대한피부연구학회, 14(3), 67-72.
- 박종운 (2012, 04, 11). 사천시 보건소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에서 2012, 06, 13 인출.
- 박종일 (2010, 09, 09). 강북구, 아토피 어린이 의료비 지원. 아시아 경제, <http://view.asiae.co.kr>에서 2012, 06, 13 인출.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의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지희 (1995).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요구전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보도자료. <http://stat.mw.go.kr>에서 2012, 04, 27 인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보도자료. <http://stat.mw.go.kr>에서 2012, 04, 27 인출.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 아토피 치료제 관련 국내외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트렌드 및 국내 보유기술 분석 연구.
- 서울대학교병원 (2012). 아토피피부염 증상. <http://health.naver.com>에서 2012, 05, 25 인출.

- 성현철, 이원주, 이석중, 김도원 (2006). 아토피피부염에서 임상적 중증도에 따른 알레르기 검사소견. 대한피부과학회지, 44(9), 1051-1057.
- 송효현 (2010). 아토피유아 지도과정에서 겪는 유아교사의 어려움. 한국열린 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2012). 아토피 피부염. <http://atopy.cdc.go.kr>에서 2012, 05, 25 인출.
- 안나영, 김경순 (2010).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신체이미지와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6(3), 35-61.
- 양수진, 윤숙정, 이재욱, 이지범, 김성진, 원영호, 이승철 (2005). 소아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와 정신, 행동, 및 가족 문제의 관련성. 대한피부과학회지, 43(9), 1170-1176.
- 오채선, 이석순, 박은미, 이명순, 장혜자, 김영신 외 (2008). 영유아사회교육. 서울: 파란마음.
- 위키백과 (2012). 알레르겐. <http://ko.wikipedia.org>에서 2012, 06, 15 인출.
- 유승민 (2011).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된 유·소아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 비용 부담에 관한 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일영, 김동희 (2006). 아토피 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양육경험 내용 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0(2), 169-179.
- 유일영, 김동희 (2004). 아토피 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간호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20(4), 423-430.
- 이은소 (1999). 스테로이드 연고의 장기사용 시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지, 42(10), 977-984.
- 이주민 (2011, 06, 24). 저소득층 아토피질환 아동 최대 30만원 의료비.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에서 2012, 06, 13 인출.

- 이지희 (2011). 아토피피부염 아동 부모와 건강 아동 부모의 아토피 관리 특성 비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영 (2008). 인천지역의 유치원 아동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역학적 특징.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원수 (2012, 04, 16). 아토피 평소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에서 2012, 05, 25 인출.
- 장은영, 정승원, 이자형 (2006).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 부모·자녀건강학회지, 9(1), 17-32.
- 전주영 (2007). 유아의 아토피성 피부염 유무에 따른 가정 생활양식 비교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6(1), 133-159.
- 전주영, 임재택 (2007). 유아의 아토피성 피부염 유무에 따른 가정 생활양식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혜인 (2006). 어머니의 자녀 식생활지도관리 실태 및 유아 영양 교육에 대한 인식 요구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슬비 (2011). 친환경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원, 장은영, 이희철, 신미용, 김병의, 안강모, 이상일 (2005).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중증도 및 행동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천식 및 알레르기, 25(1), 39-44.
- 정휘정, 오칠환, 조숙행 (1990). 아토피 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정서상태 및 가족기능에 관한 예비적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8(5), 535-542.
- 조경자, 이현숙 (2006). 유아건강교육. 서울: 학지사.
- 조복희, 오세영, 정자용, 이형민 (2008).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문제행동, 자아 역량 인식, 사회적 능력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6(5), 97-109.

- 진용준 (2011, 10, 05). 노원구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실 8일 개강. 시민일보, <http://siminilbo.co.kr>에서 2012, 06, 14 인출.
- 질병관리본부 (2009).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천식의 역학과 관리.
- 최라현, 남은우 (2009). 보건교육사가 실시한 아토피캠프와 그 성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편복양 (2005). 영유아 아토피피부염의 위험 인자.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15(3), 235-237.
- 허귀용 (2012, 05, 17). 남해군 보건소 저소득층 아토피·천식 아동지원.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에서 2012, 06, 13 인출.
- 허영호 (2007). 아토피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정호 (2008). 아토피 치료에 관한 양방과 한방, 민간요법과 자연치유법에 관한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7(1), 65-85.
- 환경부 (2011). 한눈에 보는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과 관리.
- 황기연 (2012, 04, 09). 보건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육 실시. 웨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에서 2012, 06, 14 인출.
- 황인애, 배지희 (2007). 또래관계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유아들의 요구전략과 반응양상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3), 43-67.
-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Chamlin, S. L., Cella, D., & Frieden, I. E. (2005). Development of the childhood atopic Dermatitis impact scale: initial validation of a

- quality of life measure for young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25(6), 1106–1111.
-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3), 601–616.
- Daud, L. R., Garralda, M. E., & David, T. J. (1993) Psycho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with Atopic eczema.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69, 670–676.
- Denham, S. A., Mckinley, M., Clo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Ehlken, B., Mohrenschlager, M., Kugland, B., Berger, K., Quednau, K., & Ring, J. (2005). Cost of illness study in patients suffering from atopic eczema in Germany. *Hautarzt*, 56(12), 1144–1151.
- Gil, K. M., & Sampson, H. A. (1989).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Allergy*, 44, 84–89.
- Graue, M. E., & Walsh, D. J. (1998).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Theories, methods, and ethics*. Thousand Oaks, CA: SAGE.
- Howlett, S. (1999). Emotional dysfunction, child–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hood atopic dermatitis.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40, 381–38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pidus, C. S., & Kerr, P. E. (2001). Social impact of atopic dermatitis.

*Medicine and Health*, 84(9), 294-295.

- Lewis-Jones, M. S., Finlay, A. Y., & Dykes, J. (1995). The Children's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CDLQI): initial validation and practical us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32, 942-949.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pradley, J. P.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The ethnographic interview*]. (박종흡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79에 출판)
- Stores, G., Burrows, A. B., & Crawford, C. (1998). Physiological sleep disturbance in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 case controlled study. *Pediatric Dermatology*, 15, 264-268.
- Warschburger, P., Buchholz, H., & Petermann, F. (2004). Psychological adjustment in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which factors predict parental quality of lif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50, 304-311.
- Wollenberg, A., Kraft, S., Oppel, T., & Bieber, T. (2000) Atopic dermatitis: pathogenetic mechan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25(7). 530-534.

# ABSTRACT

## Parents' experiences of difficulties and demand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Yoon, Joo-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difficulties and supporting demands for the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for children's raising in depth. Through the analysis, difficultie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s should be understood and implications for supporting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2. What are the supports that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wan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for 12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in Seoul, Gyeonggi, Gangwon, Busan and Jeju from May 27, 2011 to Jan. 31, 2012. 1 parent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was conducted by 1 individual interview and the other 11 parents were conducted by 2~3 individual interviews respectively. Based on the interview transcripts and field notes collected during the studying period, the content was read repeatedly and the materials were analyzed by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rranged by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The first, difficultie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were shown by difficulties experienced in life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when sending childre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Parents experienced difficulties as they couldn't sleep well every night for relieving children's tickle physically. And, they psychologically suffered pain because of the guilt for children's atopy, uncertain period of atopy and worrying of atopy recurrence. During the treatment of children's atopy, parents felt fear because of the side effects of steroid prescribed in hospital and difficulties because children's atopy didn't be improved even though parents used drug. In addition, children's atopy was not improved simply or was worsened in spite of oriental treatment. so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and suffered from pain caused by fraud related to private therapy and atopy products. Parents who raised young

children with atopy wounded by people's sight and careless mention for their children and felt difficulties when felt restriction for external activities and raising child with atopy and another child without it together.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felt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en they couldn't send childre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for atopy treatment and director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didn't support parents and children. In addition, they felt difficulties whe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didn't respond to the demands for treating atopy. Insuffici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related to atopy prevente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and proper guidance for children with atopy symptom, so difficulties are given to parents. Parents' children with atopy symptom experienced difficulties during the classes, because of the tickle by atopy. But, they didn't receive proper help from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negative effects were given to their atopy because of the eating foo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and food they ate during the birthday party. In relation to correlation with peers, parents worried about children's relationship with peers because of the skin condition by atopy and some children actuall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The second, the supports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wanted were demands for nation and medical institution and demand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Parents wanted to receive national supports so as to reduce treatment

cost related to atopy. Also, they expected that atopy camp can be vitalized so as to be helpful for actual life and can relieve stress and hoped that country establish systematic standard for preventing parents' confusion caused by various atopy treatments and educate parents throug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enter. In addition, parents who raised children with atopy needed psychological supports for their families and demands to doctors for sufficient explanation for children's condition and steroid and emotional supports for parents. Also, parents hoped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they can assign their children with atopy with belief is established.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hoped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can be educated by awareness related to atopy for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ed to atopy, active communication, proper education for children with atopy,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etc. Also, they wanted that understanding education related to atopy for children with atopy for general young children and food education related to atopy can be fulfilled and cooperative system of families and institutions can be formed for children's atopy management. Also, parents wanted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provides eco-friendly snack and feeding service and diet for young children with atopy is organized. In addition, they needed meeting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organizes meeting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topy.